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경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혼 초임교사의
영아반 적응과정 탐색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최 지 현

미혼 초임교사의
영아반 적응과정 탐색

권 경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최 지 현

인 준 서

최지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미혼인 초임교사가 영아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통해 그들이 교사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미혼 초임교사들이 영아반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사전 준비와 교육의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미혼 초임교사가 영아교사로서 갖는 기대감은 어떠한가?
2. 미혼 초임교사가 영아반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3. 미혼 초임교사가 영아반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은 어떠한가?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어린이집 한 곳을 정하여 2011년 5월 9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 총 24회의 참여관찰과 6회의 교사 개별면담, 그리고 1회의 공동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참여관찰 일지, 면담내용, 일일교육 계획안, 일일평가를 수집하여 일련의 조직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기본으로 연구 문제에 따라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반을 처음 맡게 될 때 영아교사로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미혼 초임교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한한 애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것이라는 다짐과, 영아들은 교사의 의견에 순응하고 교사의 편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다. 이를 통해 내 반과 내 아이들이 생긴다는 설렘과 기대로 영아교사로서의 반 운영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영아의 실질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영아의 기본적 욕구 지원의 어려움과 규칙과 허용 경계 짓기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초임교사들은 교직 직전 교육에서 영아의 발달을 이론서를 통해 이해하였으나 실제 영아들의 발달 상태는 이론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영아들의 발달은 개개인에 따라 특성과 차이가 있기에, 미혼 초임교사들은 이러한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영아반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아들의 성장과 변화, 자신만의 노하우 축적과 이를 통해 융통성 있는 일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교사로서 성장한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미혼 초임교사들은 신체, 언어, 정서,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영아들의 모습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영아 발달에 영향을 준 스스로에게 보람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어린이집에 적응하여 원만한 생활을 하는 영아들에게 애착을 느끼고, 이러한 애착관계를 통해 영아교사만이 갖는 보람됨을 경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미혼 초임교사의 영아반 적응과정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초임교사들이 영아반에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영아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직 직전 교육기관에서는 임용 후 현장에서 바로 실용할 수 있는 영아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영아교사 양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 기관에서는 미혼 초임교사가 전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선배교사와의 멘토링을 실시해야 하며 멘토링 프로그램은 미혼 초임교사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함께 지원해 주어 미혼 초임교사가 안정된 정서로 영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5
3. 연구자	5
II . 이론적 배경	8
1. 영아기의 특성과 보육	8
1) 영아기의 특성	8
2) 영아보육의 의미와 중요성	10
2. 영아교사의 자질 및 역할	14
1) 영아교사의 자질	14
2) 영아교사의 역할	17
3. 초임교사의 특성 및 교직 적응	20
1) 초임교사의 특성	20
2) 초임교사의 어려움과 적응	24
III . 연구방법	26
1. 연구 참여자	26
2. 연구 현장	29
3. 자료 수집	35

4. 자료의 타당화 작업	38
5. 자료의 분석	40
IV. 결과 및 해석	41
1. 미혼 초임교사가 영아교사로서 갖는 기대감	41
1) 무한한 애정으로 영아들만을 사랑 할 것이라 생각	42
2) 영아들은 무조건 내편일 거라는 기대	46
3) 내 반과 내 아이들이 생긴다는 기대	49
2. 미혼 초임교사가 영아반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54
1) 영아의 실질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부족	54
2) 의사소통의 어려움	58
3) 영아의 기본적 욕구 지원의 어려움	62
4) 규칙, 허용 경계 짓기의 어려움	68
3. 미혼 초임교사가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보람	72
1) 영아들의 성장과 변화	72
2) 노하우의 축적	77
3) 융통성 있는 일과 운영	81
V. 결론 및 논의	87
1. 결론 및 논의	87
2. 제언	93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토끼반 하루 일과의 예	31
<표 2> 기린반 하루 일과의 예	3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여성은 가정에서 직접 육아를 책임지던 과거와는 달리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경제적인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해 육아는 조부모와 친·인척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로 인해 핵가족화가 되고 주변과의 상호교류도 적어지게 되면서 육아를 전문적으로 담당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김희진, 김언아, 홍희란, 2006). 이렇게 전문기관으로 이양된 육아는 단순한 보호가 아닌 교육까지 책임지는 ‘보육’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보육의 책임은 점점 가정에서 사회로 이양되어 영아의 보호, 사회화, 교육에 대한 문제가 가족과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임미혜, 이혜원, 황운세, 2007). 이러한 보육의 대상은 출생에서 학령전인 영·유아들(조복희, 2007)이며, 보육기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점점 하향화되는 추세이므로 영아를 담당하는 영아보육 기관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김희진 외, 2006).

영아기는 인간의 일생에서 신체, 정서, 인지, 언어 등의 발달이 극대화를 이루는 결정적시기이며(조복희, 공인숙, 권희경 외, 2007), 배변, 낮잠, 휴식, 간식, 손 씻기 등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조능력을 기르고 기본생활습관을 배우는 시기이다(탁정화, 2011). 이 시기의 원활한 발달은 인간생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 잘 못 형성된 결함은 이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영아기의 적절한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시기

영아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아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사는 효과적인 보육을 결정하는 매개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르치는 역할과 보호 및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이진화, 2007). 특히,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아를 담당하는 영아교사는 영아보육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영아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며 영아의 초기 사회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이완희, 2004). 또한 영아교사는 엄마를 대신해 영아들을 보호하고 상호작용하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지해 주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한다(이경하, 임영심, 2006). 이와 같이 영아교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며 영아보육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 만 아니라 영아교사에 따라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이완정, 1999; NICHD, 1996)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높은 자질이 요구된다.

이처럼 영아보육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아교사도 교직에 입문하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초임교사로서의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교사로서 교직 초기의 경험은 교사 발달의 전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단계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박동준, 1992). 즉, 초임교사 시기는 앞으로 어떤 교사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이며(이지현, 2002), 교사가 평생 동안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교직 입문 시기동안 획득하게 되고, 이러한 입문 기간은 교사의 전 생애 동안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오현미, 2009). 그러므로 초임교사의 입문 시기는 교직 전체의 생애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교사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게 되며 학생에서 교사로 전환하는 힘겨운 과정은 ‘현실충격’(Huberman, 1989, Veenman, 1984)이라고 표현되듯이 교육현장은 초임교사들에게 막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초임교사들이 직전교육을 통해 교사로서의 준비교육을 마쳤다고는

하나 교사로서 현장에 입문하게 되면 교수, 학급운영, 행동지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등의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한꺼번에 떠맡게 된다. 그리고 초임교사는 교직에 입문 하자마자 경력교사와 동일한 수준의 과제수행을 기대받기 때문에 교직초기가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조혜진, 2007).

초임교사가 보육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은 다양하다. 이를 살펴보면 교사역할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염지숙, 2005)과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배우던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바뀌어 교사라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사회적 책무, 교직직전 유아중심의 교육을 받고 영아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오는 혼돈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이완희, 2004). 또한 영아의 발달특성상 직접적으로 일일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업무적 특성에서 오는 육체·정신적 피로, 유아반 위주의 교육지원과 물리적 환경, 교재교구 부족, 교사 1인의 담임체제 등의 열악한 보육환경 등이 있으며(조혜진, 2007) 보살핌의 행위가 주가 되는 영아반 교사의 역할에서 오는 갈등과 혼란이 영아교사들에게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양지영, 2007).

지금까지 이루어진 초임교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어려움과 관련된 것들이며 이들의 논문을 살펴보면 영아교사로서의 정체성이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지영(2007)은 미혼 초임교사는 보살핌에 대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완희와 박찬옥(2005)은 보살핌을 실천하는 영아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지현(2006)은 영아보육에서의 보살핌은 그 자체가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한 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며, 곧 보살핌은 가르침에 대한 행위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영아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보살피는 행위 자체에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미혼 초임교사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초임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성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미혼 초임교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며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미혼 초임교사에 대한 논문은 유아대상의 초임교사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유치원 초임교사의 어려움 및 지원에 대한 연구(강상이, 2002; 신은수, 권미경, 2004; 이현경, 2002), 예비 초임교사의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이명순, 2000)가 유치원교사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 어린이집 교사대상의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나 양육의 경험이 없는 미혼 초임교사들에게 보살핌 위주의 역할은 전문성에 대한 회의로까지 나타날(양지영, 2007) 뿐 만 아니라 정서적 고갈과 성취감 결여로 인해 미혼교사의 소진이 매우 높음(윤혜영, 김상희, 2010)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 초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뿐 만 아니라 그들이 영아반 교사로 임용되어 스스로 영아반을 운영하며 교사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미혼 초임교사들이 스스로 영아반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는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기대감으로 영아반 교사가 되었는지, 영아반 교사로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혼 초임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갖추어야 사항은 무엇이며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미혼 초임교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영아반에 적응하고 스스로 영아반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미혼 초임교사가 영아교사로서 갖는 기대감은 어떠한가?
- 2) 미혼 초임교사가 영아반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 3) 미혼 초임교사가 영아반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은 어떠한가?

3. 연구자

연구자는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만 4세반 담임을 맡아 3년간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며 어린이집 만 1세, 2세 영아반의 부담임 일을 함께 병행하게 되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아반을 3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연구자는 스스로를 경력자라고 생각하고 영아반 부담임 일을 시작했지만 영아반은 처음이라 많은 것들이 생소했다.

연구자는 어린이집의 일과가 처음이었고, 아직 미혼이었기 때문에 어린 영아들과의 생활이 처음이었다. 또한 영아들의 언어, 놀이, 일상생활 등 모든 활동들이 생소하여 영아반 부담임으로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 특히 미혼인 연구자는 영아들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본육구를 해결해주는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미흡했으며 어려웠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면서도 ‘영아들이 불편해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담임교사에게 내 행동에 대해 확인 받고 싶었다. 또한 영아들의 의사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해 영아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은 연구자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영아들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게 대응해

주고, 달래주고 싶었으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영아들을 파악하는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로인해 학기 초 영아들의 알 수 없는 울음을 달래야 했으며 그러면서도 항상 ‘왜 우는 걸까?’ ‘어떻게 해야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영아반 교사가 되기 전에는 영아를 생각하면 작고, 여리며 선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연구자가 영아반을 겪으며 느낀 것은 겉으로 보이는 작고, 귀여운 외모처럼 모든 것이 선하지만은 안다는 것이었다. 영아들의 개성은 강했으며, 제 각기 기질도 달랐고, 상황에 따른 요구사항도 모두 다 달라 이를 알고 맞춰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영아들은 첫 사회를 경험하는 것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 규칙들을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영아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가르쳐 주고, 각기 다른 성향도 맞춰주면서 연구자는 영아반 교사의 애로사항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영아반을 경험하기 전에는 영아반의 일과는 단순하고, 영아들은 보호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연령보다는 한결 쉬울 거라 생각했지만 영아반 교사는 세밀하고 미묘한 감성으로 영아들의 감정을 읽어야 하고, 강한 인내심으로 영아들의 변화를 기다려야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아반 교사는 영아들을 적응시키고 나면 영아들의 성장과 순수한 모습에 보람을 느끼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연구자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영아반을 처음 경험하는 교사들도 같은 적응과정을 겪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다. 특히 미혼인 초임교사들은 영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자와 같은 의문과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미혼 초임교사들이 영아들과의 생활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이겨내는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영아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경험해 보지 않은 여러 일들을 어떻게 배워 가는지를 연구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 미혼 초임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며 예비 영아교사들이 영아교사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미혼 초임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아기의 특성과 보육

1) 영아기의 특성

영아기는 출생에서부터 만 2세(36개월)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영아기는 인간의 발달에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며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이다(윤장숙 2010). 이 시기의 경험은 인간의 전 생애의 발달에 영향을 주며 발달의 기반을 형성한다. 발달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영아기는 신체, 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 시기의 발달은 이 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영아기에 형성된 결함은 이후 회복이 어렵기 때문 영아기의 적절한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박유미, 2008).

영아기 발달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영아의 신체적인 발달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생후 첫 1년간 건강한 영아의 경우 신장은 1년 동안 1.5배, 체중은 3배 정도 증가한다. 두 돌 무렵이 되면 신장은 성인키의 절반가량이 되고 체중은 출생 시 체중의 4배가 된다. 영아기의 가장 주목할 만한 대 근육 운동기능은 고개도 못 가눌 정도로 전적으로 의존적이던 상태에서 뒤집기, 기기, 서기, 걷기, 달리기 등을 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인물로 영아를 바꿔놓는 것이다.

언어 발달을 살펴보면 영아기 언어 발달의 첫 단계는 울음이며 그 후 4~

5개월경에는 언어와 유사한 최초의 말소리인 웅알이를 하게 된다. 생후 1년 경이 되면 영아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단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2세경이 되면 영아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연결시켜 말할 수 있게 된다.

사회 정서 발달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영아는 점차 분화된 정서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다. 또한 영아기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사회적 발달은 애착이다. 애착은 부모나 자신을 돌보아 주는 대상에게 애착심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애착 형성은 세상에 대한 신뢰감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또한 영아기는 이러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점차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어 가는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2).

영아시기에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면, 영아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혼자 노는 것을 더 좋아하고 가끔 다른 사람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단순 병행놀이를 할뿐 다른 사람과의 의견 교환이나 놀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래 친구보다는 환경과 놀잇감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특징이다(노수래, 2011). 또한 신체적으로 아직 발달이 미숙한 영아는 모든 면에서 성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성은 영아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영아기에는 의존성 뿐 아니라 무엇이든 혼자 해보려는 자율성도 함께 나타난다(김지현, 2006). 이러한 영아기의 특성인 자율성에 대해 광승주(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영아들이 종종 부정적인 언어표현과 함께 도움을 시도하는 교사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모습을 나타내었고, 표정, 몸짓 등으로 뚜렷한 자기중심적 의사를 보이면서 소유감, 자율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렇듯 영아기만이 갖는 특성이 있으므로 영아를 잘 보육하기 위해서는 영아발달과 개별 영아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기초 되어야한다.

2) 영아보육의 의미와 중요성

(1) 현대사회에서의 영아보육의 의미

늘어나는 취업모와 핵가족화 되는 현대 사회에서 영아보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아보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2009)의 자료에 따르면 보육아동의 수는 2000년 686,000명에서 2008년 1,135,502로 약 2배 정도가 증가하였고 2009년 12월말 기준 1,175,049명이며 이 중 만 2세 이하의 영아의 수는 574,394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약 4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육기관에 맡겨지는 전체 아동 수의 증가와 그 가운데 영아수의 증가가 나타내는 것은 이른 시기부터 영아들이 주 양육자인 부모와 떨어져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영아보육이 갖는 의미는 점점 확대되어야 한다.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보육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아보육이란 과거의 보호개념에서 벗어나 영아기의 발달에 필요한 특성을 통합적(신체, 정서, 사회, 인지 등)으로 교육하는 것이며(장영희, 2000), 부모가 충분히 보호하고 교육할 수 없을 때 이를 위한 책임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김현숙, 1993; 성은숙, 2007에서 재인용).

이렇듯 현대 사회의 보육이 갖는 의미는 과거의 영아반 운영의 정의와는 다른 좀 더 포괄적이고 확장된 개념으로 변화 되었고, 보육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도 변화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변화된 보육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성은숙(2007)은 과거의 개념인 단순히 시설에 영아를 맡긴다는 것을 넘어서 보호와 교육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포괄적 프로

그럼으로써 보호와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양옥승 외(1999)은 보육은 더 이상 저소득층, 취업 모 가정 등의 특수 계층의 문제가 아닌 모든 계층의 일상생활과 삶의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영아보육은 영아가 자발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대를 긴밀히 도모하는 역할과 가정양육을 보완해서 영아들의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데 있다(성은숙, 2007).

영아보육은 영아는 배변, 낮잠, 휴식, 식사, 간식, 세면 등 생존과 건강에 관련된 기본생활을 위한 양육활동이 이 시기에 보육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보육은 부모의 질병, 취업, 보육의 전문성 결여,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부모가 충분히 보호하고 교육할 수 없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책임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배성희, 2003). 이렇듯 변화된 현대 사회는 취업 모 가족 뿐 아니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이 점점 더 포괄적이고 확대되어 가고 있음으로 영아보육은 점차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으로 넓혀지고 있는 것이다.

보육은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진화 하여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보호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계층 뿐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필요한 개념이며 보육이 갖는 의미도 포괄적이고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보육의 의미를 정리하면 보육의 대상은 0세에서 취학 전 연령인 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말하며, 보육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뿐 아니라 영양, 건강, 부모 서비스, 지역사회 교류를 포함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울 뿐 아니라 영유아의 가족 지원과 지역사회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라고 볼 수 있다(조복희 외, 2007).

(2) 영아보육의 중요성

영아보육의 중요성은 사회적인 측면과 영아의 발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가정과 달리 부모가 모두 경제 활동을 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보육기관에서는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영아를 대신 보호해주는 기능을 맡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가정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보육기관의 기능은 단순한 보호가 아닌 교육까지 책임지는 ‘보육’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육아의 책임은 점점 가정에서 사회로 이양되어 영아의 보호, 사회화, 교육에 대한 문제가 가족과 사회의 공동 책임(임미혜, 이혜원, 황윤세, 2007)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인 활동의 이유만으로 보육기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척과의 상호 교류가 적어짐에 따라 자녀들을 보살피 줄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부모들은 외출, 또래 접촉, 교육 등으로 보육기관을 찾게 되며 그 연령도 하향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김희진 외, 2006). 이렇게 사회, 문화,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영아보육은 과거의 가정에서만 책임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고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아들은 보육기관의 보호와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시기의 영아들은 인간의 일생에서 발달 속도가 다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변화의 폭도 큰 시기에 해당 된다(장영희, 2000). 영아 시기에는 신체, 정서, 인지, 언어 등의 발달이 극대화를 이루는 결정적 시기임으로 영아들을 안전하게 보살피고, 발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영아보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영아기의 발달은 신체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즉 사회적 과정이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과정이 사회 정서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로 얽혀 있다(정옥분, 2007). 따라서 영아의 발달은

한 영역의 발달이나 경험만을 강조해서는 바람직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영아를 둘러싼 주 양육자와 교사는 영아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초기적응 기간 동안 발달에 맞는 놀이를 계획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영아의 정서적인 심리상태를 이해하며,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영아의 안정적인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김지수, 2008).

영아기는 뛰어 다닐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신체발달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언어능력도 발달한다. 또한 이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인지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감각기관들의 자극이 필요한 시기이다(정옥분, 2007). 영아는 대소변 가리기, 스스로 먹고 옷 입기 등 생활관리 능력이 습득되면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부모로부터 격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부모 외의 교사나 다른 성인에게도 애착이 확대될 수 있다. 이 시기에 일상적인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양육자가 격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며 연습할 기회를 줌으로서 자율성도 신장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관리를 할 수 없는 영아에게 성인이 대신 해 주거나 잘못하는 것을 지나치게 꾸짖고 처벌하면 영아는 수치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는 어린이로 성장하게 된다(홍윤정, 2004). 그러므로 영아기에 학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능력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첫 대인관계와 신뢰성을 확립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더불어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아들을 먹이고, 씻기고, 잠재우며, 안정하게 보호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즉, 사랑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 시켜 주어야 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성은숙, 2008). 특히 만1~2세 때는 발달적으로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애착 대상자인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기(장영희, 2000) 때문에 애착대상과

의 갑작스런 분리 경험이나 낯선 상황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아동의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보육시설 적응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지고 영아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즐기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하도록 자신감을 주며, 자아 존중감, 자기 확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이현경, 2002).

이와 같이 영아보육은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아의 개인 발달특성에 따라 개별적, 반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영아의 욕구, 흥미, 능력에 따라 적절히 제공 되어야 한다.

2. 영아교사의 자질 및 역할

1) 영아교사의 자질

영아교사는 보육시설에서 0세~2세까지의 연령의 영아에게 보호자(Caregiver) 및 교육자(teacher)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영아교사이다(신희이, 2011). 따라서 영아교사는 영아의 발달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그들의 특성에 적절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갖출 뿐 만 아니라 직책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의 영아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이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다 훌륭한 영아교사가 될 수는 없으며 영아교사는 영아의 발달을 돕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영아교사의 자질은 개인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는데 영아교사

가 가져야 할 개인적 자질은 다음과 같다(신희이, 2011).

첫째, 영아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자애로움을 지녀야 한다. 둘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셋째,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과 인격을 지녀야 한다. 넷째, 영아 개개인이 귀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알고 긍정적 사고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영아교사는 영아를 귀하게 아끼는 마음,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따뜻하고 선량한 성품, 말을 삼가고 조심스러운 마음(서영숙, 김경혜, 2006) 등을 지녀야 한다. 또한 인내심과 포용력, 명랑함과 유머감각 등이 필요한데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질 중의 하나는 인내심이며 신뢰감 또한 영아교사가 중점을 두고 갖추어 나갈 가치 있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이남주, 김소양, 이재삼, 장현주, 2011).

보육기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보육기관의 영아교사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온 보호자나 양육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닌 영아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영아를 지도하는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있다(이완희, 2004).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영아교사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영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자질은 영아에 관한 전문적 지식, 교육과정 및 교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운영 기술, 교직에 대한 건전한 태도, 윤리 의식 등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자질을 말한다(윤애희, 이경희, 임은숙, 임채식, 정정옥, 주영은, 2003). 또한 심성경, 백영애, 이희자, 이영희 외(2009)는 영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교육과정 및 교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교육과정 및 교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기술, 교직에 대한 건전한 태도 및 윤리의식과 관련된 자질을 뜻한다고 하였다.

영아교사의 전문적 자질은 학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가 고졸의 학력을 가진 교사보다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대해서 높았다(황정선, 2000; 김정한, 2004). 또한 Howes(1997)는 학력이 높

은 교사가 학력이 낮은 교사보다 영아기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사의 공식적인 학력과 초기 유아기의 교육에 관한 훈련 여부가 교사의 보육현장에서의 교수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신희이, 2011에서 재인용). 또한 교사의 전문성은 경력이 10년에서 15년 이상일 때 가장 높으며(김정한, 2003; 조부경, 1994) 경력이 높을수록 전문성 발달수준이 높았으며(이경돈, 2010; 이순영, 2009; 박유미, 2008) 신희이(2011)의 연구에서는 영아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직헌신, 전문성 발달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교사의 전문적 자질은 학력과 경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교사만이 가져야 할 전문적 자질에 대해 이향(1999)은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교사에 대한 접촉추구와 비접촉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성인에 대한 영아의 의존이 강하므로 영아를 보육하는 교사는 영아를 돌보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영아에 대한 사랑이 부드러운 말투와 손길로 느껴질 수 있는 높은 자질이 요구 된다고 하였다. 또한 Honing (1995)은 영아교사는 영아개개인의 요구에 대해 민감히 반응해야 하며 영아기 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많은 융통성과 인내가 필요하며, 풍부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영아의 언어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영아교사는 영아교사만이 지녀야 할 전문적 자질과 역할을 갖춰야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영아교사의 고유한 전문정보다는 보육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영아교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춰 영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아교사의 전문성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탁정화, 2011).

2) 영아교사의 역할

영아교사는 영아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신체, 사회, 인지 등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영아교사가 해야 하는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영아교사는 엄마를 대신해 영아들을 보호하고 상호작용하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지해 주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한다(이경하, 임영심, 2006). 즉, 영아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아야 하며, 어린 영아의 경우 수유 및 기저귀 갈기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리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신희이, 2011). 또한 보육시설의 영아들은 오랜 시간을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영아가 가정에서와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영양, 수면, 배변 등의 생리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보건복지 가족부, 2008). 안전한 환경은 영아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올바른 인격형성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영아교사는 영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영아들의 자발적인 흥미와 호기심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영아교사는 발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교육자로서 영아들의 능력을 믿고 비계 설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보건복지 가족부, 2008), 영아교사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반성적 실천자로서의 역할, 부모와의 상호작용, 교직원들과의 상호작용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동반적으로 수행한다(이희경, 김성수, 2000). 또한 영아교사는 영아의 감정이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줌으로써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안선희, 김지은, 2010).

영아교사는 영아의 발달과 활동전반을 항상 관찰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영아의 독특하고 특별한 요구와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

기 위해 영아의 행동, 기능, 생활패턴 등을 기록함으로써 보육활동의 계획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활기록부, 연락장, 보육일지 등을 활용하여 개별 보육의 기초로 삼으며 영아발달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등 부모와 효율적인 대화를 하도록 한다(임주희, 최연실, 2006).

이러한 영아교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영아교사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2005).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 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과거의 영아교사는 영아를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로 혼동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영아교사는 보육과 교육을 함께 포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동시해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성은숙, 2007).

어린이집에서 영아와 함께 하루 종일 생활하는 교사는 영아의 등원 맞이하기로 시작하여 신발과 옷 벗기, 손 씻기와 양치하기 등의 자조활동, 간식과 식사하기, 기저귀 갈기와 대소변 가리기, 낮잠 자기와 휴식하기 등의 일상적 양육, 자유롭게 탐색하기, 실내놀이하기, 실외놀이 하기, 산책하기 등의 교육적 활동, 영아의 귀가 후 가정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부모와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보건복지 가족부, 2008). 이와 같이 영아교사는 영아가 등원을 함과 동시에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이러한 영아교사의 역할을 하루일과에 따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장원동, 홍인혜, 2009, 보건복지 가족부, 2008).

첫째, 등원할 때 영아교사는 아침에 출근하는 부모와 함께 등원하는 영아

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영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지난 밤 사이의 변화나 상태에 대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연락장 또는 수첩을 통해 확인한다.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하고 울며 거부하는 영아에게는 꾸준히 안아주고 관심 있는 놀잇감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한다.

둘째, 간식 및 점심시간에 교사는 영아의 개개인에 따라 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그 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모와의 상담이나 부모기록지 등을 참고하여 양을 조절해주어야 한다. 또한 음식에 대해 충분히 탐구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움을 주며 식사가 끝난 후 영아들의 양치를 지도한다.

셋째, 실내 자유선택활동 시간동안 교사는 영아 스스로 하고 싶은 놀이와 놀잇감을 선택하게 하고, 탐색 활동을 오랫동안 즐기는 영아에게는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며,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놀잇감에 대해 같이 반응하고, 놀이를 할 때 격려해 준다. 또한 영아들은 신체적 활동이 많은 경우 피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넷째, 기저귀를 갈아 줄 때에는 물휴지 등으로 깨끗이 닦아주어야 하며, 대변 시에는 가급적 물을 이용하여 닦아 주어야한다. 교사는 영아에게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는 등 즐거운 상호작용 기회로 활용한다. 배변훈련을 하는 영아는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데리고 가도록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꾸짖거나 야단치지 말아야 하며 배변에 성공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어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배변 후에는 항상 손을 씻어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섯째, 영아들이 낮잠을 잘 때 교사는 조용한 분위기로 잠을 잘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며,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해 채광을 차단하고 조명을 줄여 낮잠을 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또한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자장가나 이야기 등을 들려주거나 그림책을 읽어준다. 먼저 깨

어나는 영아에게는 계속 자는 영아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한 활동을 하면서 지내도록 배려한다.

여섯째, 실외놀이 및 산책에서 교사는 실외놀이가 길어지거나 지나치게 날씨가 더운 경우를 고려하여 영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바깥 온도나 날씨 변화에 따라 실외 놀이를 하는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일곱째, 귀가 지도를 할 때 교사는 영아의 소지품을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어야 하며 영아의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어주고, 옷도 갈아입혀 주며, 부모와 만나기 전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본다. 영아가 약속된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러한 영아교사의 역할에 대해 종합해 보면, 과거의 영아교사의 이미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보모의 역할로 비춰졌다면, 현재의 영아교사는 영아들의 전인적 발달과 안정된 정서를 지원 해주고, 교수자로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하며, 영아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영아를 관찰하고 더 나은 교수활동을 위해 연구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 또한 교육과 관련된 부모, 교직원등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3. 초임교사의 특성 및 교직 적응

1) 초임교사의 특성

초임교사는 교직 직전 기관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마치고 교직에 입문하게 된다. 초임교사 시기는 새로운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교직 첫해는 그러한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며 교사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초임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직 기간 전체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한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Fuller(1969)는 교사 발달을 교사 관심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단계는 교직 이전 단계, 2단계 초기 교직 단계, 3단계 후기 교직 단계로 나누었다. 이 중 초임교사는 2단계인 ‘초기 교직 단계’에 해당되며 교사는 교사자신의 자아, 새로운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외적으로 교육현장 상황에 대처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교육현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운영 및 상황적인 요인을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시기라고 설명하였다. Fuller 와 Bown(1975)는 1단계 교직 이전 관심사 단계, 2단계 생존에 대한 관심사 단계, 3단계 교수 상황 관심사 단계, 4단계 학생에 대한 관심사 단계로 나누었으며 초임교사는 2단계 ‘생존에 대한 초기 관심사’에 해당된다. 이시기의 교사들은 실제 교직 상황에서 관심사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며 학급통제나 가르칠 내용 숙달, 장학사의 평가에 관심을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설명했다(염지숙, 이명순 외, 2008). 또한 Katz(1972, 1985)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발달 단계를 연구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1단계 생존단계, 2단계 강화 단계, 3단계 갱신단계, 4단계 성숙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중 1단계 생존단계는 교직생활 첫 1년에 해당하는 초임교사들의 특성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초임교사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표명하며 ‘내가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동료교사들이 나를 교사로 받아들일까?’ 등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려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Burke와 그 동료들의 교사 발달 순환 모델을 살펴보면 1단계 교직 이전단계, 2단계 교직 입문단계, 3단계 능력 구축단계, 4단계 열정과 성장단계, 5단계 교직 좌절 단계, 6단계 안정과 침체단계, 7단계 교직

쇠퇴단계, 8단계 교직 퇴직단계이며, 이러한 8단계는 교사의 개인적 환경과 학교의 조직적 환경의 영향으로 순환된다고 보았다. 이 중 1단계인 교직 입문단계에서는 교직 입문초기 몇 해 동안 일상적인 활동에 익숙해져 가는 기간으로 학생, 동료, 교사, 장학사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근무기관이나 교육 구를 바꾸면서 교사로서 생존하고자 노력한다고 말하였다(백은주, 서소용, 조부경 2005). 국내에서는 박은혜(2009)가 초임교사의 교직 첫해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박은혜(2009)는 기대 단계, 생존 단계, 좌절 및 갈등의 단계, 반성 및 회복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기대 단계’는 실습을 마치고 취직을 해서 학급을 맡기 직전까지의 시기이며 이 시기 교사들은 이상적으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생존 단계’는 처음으로 학급을 맡자마자 교사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들을 경력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행하게 되는 학기 초를 말하며 이시기는 하루살이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좌절 및 갈등 단계’는 입문한지 1~2개월이 지났을 때이며 초임교사는 교사가 되기 이전에 가졌던 이상은 어느 덧 사라지고 이론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에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인 ‘반성 및 회복의 단계’는 한 학기가 지난 후 방학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현직 연수에 참여하고 다음 학기를 계획하고 동료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다음 학기를 위한 에너지가 재충전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전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 학기 역시 생존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며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이상 교사 발달이론을 살펴보면 초임교사들은 교직에서 생존하기 위한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생존기에 있는 초임교사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고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료 교사가 지원, 지도, 격려, 위로 등 심리적 안정과 교실 현장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입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박은혜, 배소연 외, 2002).

초임교사의 특성 중 그 시기의 사고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임교사의 사고는 의사 결정 과정, 사고의 레퍼토리, 지식의 통합, 학생 행동의 조정 등 모든 분야에서 경력교사의 사고와 차이를 보인다.

경력교사는 교수 계획에서 학생의 경험, 반응에 따라 교수 계획을 수정하고,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과, 자료, 방법을 계획한다. 교수 활동에서도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학생들에게 옳고 적절한 규칙과 일과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또한 적절한 환경 구성과 적절한 주제를 제시하며, 학생의 요구에 따르는 교수를 적용한다(Colton & Sparks-Lange, 1993; Reynold, 1992). 그러나 초임교사는 통합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전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련성이 부족하다. 초임교사는 교수 계획에서 교육 과정 목표만을 근거로 계획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수법을 알지 못한다. 교수 활동에서는 계획에 의해서만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흥미와 논의를 제한하고, 교육 내용과 교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박은혜 외, 2002). 초임교사는 이 외에도 학생들의 행동을 다루는 데 미숙하고 어려움을 갖는다 (Carter & Richardson, 1989). 학생들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경력교사는 수업 진행시 학생들의 행동적 단서를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동기를 유발시키고, 그들의 감정을 조절하는 실천적 전략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러나 초임교사는 학생들의 위반 행동이 처음 발생했을 때 대개는 무시하고, 행동이 너무 과격해지면 학생을 비난하거나 벌을 주는 등 학생들의 행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한 예방과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이처럼 초임교사는 경력 교사와 달리 수업의 계획, 실행, 평가 과정에서 적절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교수 실행 과정에서도 융통성이 없고, 학생들의 경험이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은혜 외, 2002).

2) 초임교사의 어려움과 적응

초임교사는 임용 후 교사라는 직책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교사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교직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초임교사 기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교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초임교사 시절은 앞으로 어떤 교사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이지현, 2002). 이렇듯 초임교사 시기는 교직 전체에 있어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으나 이들은 교직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교직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초임교사들의 교직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낮은 사회적 인식과 초임교사라는 자격지심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교수행위와 능력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부모, 유아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고 기관장의 기대나 동료교사의 평가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학급경영의 측면에서는 지식 및 교수기술의 부족, 수업자료의 부족, 유아의 생활지도 및 문제행동 지도 등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행정업무나 행사준비, 차량지도, 청소 등의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상이, 2002; 이현경, 2000, 조운주, 최일선, 2004; 주연희, 유미림, 2003). 초임 영아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영아반 초임교사들은 보살핌 위주의 교사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가르침과 보살핌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초임교사들은 교사 양성과정에서 유아중심의 교육과정과 이론위주의 수업으로 배웠기 때문에 영아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혼돈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조혜진, 2007).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임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좌절을 통해 교직에 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양지영(2007)은 양육의 경험이 없이 보살핌에 대한 행위가 주가 되는 영아반 교사의 역할은 많은 갈등과 회의를 가지고 오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아반 교사로서 보살핌에 대한 역할의 관심과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인식의 변화과정이 오게 된다고 하였고, 이환희, 박찬옥(2005)은 미혼 초임교사들은 혼돈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갈등을 조절하며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고 엄마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초임교사들은 교직 첫 해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단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교사로서의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감 및 노하우, 발전욕구를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교직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운주, 최일선, 2004).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1) 만 1세 토끼반 박 교사

박 교사는 2011년에 하늘 어린이집에 임용된 미혼인 초임교사이다. 박 교사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3년제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바로 어린이집에 취업을 한 사회 초년생이다.

박 교사는 중, 고등학교 때부터 유아교사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대입을 준비하여 유아교육과에 진학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대학 생활동안 대학부속 어린이집에서 만 3세반 부담임을 한 경력이 있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박 교사는 대학생활에서 영아보다는 유아 위주의 교육과정을 받고 부담임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유아반 교사가 되길 희망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박 교사는 영아반 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영아교사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부족하였다고 한다. 그런 박 교사가 왜 영아반에 배정 된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 같이 대답하였다.

원장 선생님께서 제 표정이 밝고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채용이 되고 의욕이 넘쳐서 책도 열심히 읽어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 같아요. 성격이 어둡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2011. 8. 5. 박 교사 면담)

박 교사는 스스로가 성격이 밝고 영아들과 재미있게 놀아 주는 모습을 보고 영아반에 배치 된 것 같다고 하였다. 실제로 박 교사는 상황 변화에 따

라 표정이 다양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영아들을 대하고 있었으며, 연구자와의 만남에서도 언제나 친절하였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아반 교사가 되기 전 까지 영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던 박 교사지만 영아반 담임이 된 후 영아들에게 사랑 표현을 많이 하는 교사가 되기로 다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심으로 영아반을 맞게 되었고, 현재에도 처음 가졌던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2) 만 2세 기린반 이 교사

이 교사는 2011년도에 하늘 어린이집에 임용된 미혼인 초임교사이다. 이 교사는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 후 바로 어린이집에 취업을 한 사회 초년생이다.

이 교사는 중학교 때 까지 디자인을 공부하여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꿈꾸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이후 다른 전공을 생각하게 되었고, 사촌동생들을 돌보고, 즐겁게 놀아주면서 선생님이 되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이 후 이 교사는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학과 공부와 과제를 하며 유아 교육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 교사는 만 2세반에서 보육실습을 경험하여 영아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었지만 만 2세 영아의 일 년 과정을 지켜 본 것이 아니라 영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 교사 역시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영아보다는 유아 위주의 교육과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 교사는 어떤 일이든 처음은 힘들지만 꺾다보면 무엇이든 해 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고 했다. 영아반 담임도 마찬가지로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했으며, 어린 영아들에게 첫 선생님

이 된다는 설렘이 있었다고 한다. 이 교사는 영아반 담임이 되어 갖게 된 다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영아반 맞은 후에 영아반이면은 아이들이랑 재밋게 놀아주고 어린이집에 즐겁게 다닐 수 있게,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자..(중략) 재밋게 놀아주고, 재밋는 기억을 많이 남게 해주자 했었어요.

(2011. 8. 16. 이 교사 면담)

영아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기억을 남게 해 주기 위해서는 딱딱하고 지시적인 교사가 아닌 영아들의 의견을 수용해주는 친절한 교사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이 교사는 영아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연구자가 연구기간을 통해 본 이 교사는 영아들 뿐 아니라 연구자와 동료 교사의 말을 잘 수용해 주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 교사의 성격이 영아반을 운영하면서도 보여 지고 있었으며 영아들에게 많은 부분을 허용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연구 현장

1) 하늘 어린이집

연구자가 선정한 하늘 어린이집은 서울시 A구 B동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2009년 S전문대학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늘 어린이집은 작은 시장 주변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주로 그 주변의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학급은 총 9개반(1세- 2반, 2세- 2반, 3세- 1반, 4세 이상- 2반, 시간 연장- 1반, 장애아 종일반- 1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77명의 영·유아와 12명의 교직원(시설장, 교사, 취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이다. 연구기관의 시설장은 유아교육전공자(석사학위 소유/ 유치원, 어린이집 경력 10년)로서 2009년부터 하늘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늘 어린이집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단독건물이며 층과 층을 연결하는 계단 한편에는 비상시 영, 유아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미끄럼틀이 있다. 지하 1층에는 체육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체육실 안에는 놀이터로 통하는 문이 있어 지하 1층은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대근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교사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참고도서와 교구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1층에는 만1세반과 2세반이 위치하여있고 두 반 사이에는 영아들의 화장실이 있으며, 주방과 유아반이 식사를 하는 식당, 원장 선생님의 집무실이 배치 되어 있다. 2층은 만 2세반, 만 3세반, 만 4세반이 각각 한 반씩 배치되어 있다. 3층은 만 5세반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만 5세반은 작은 베란다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

하늘 어린이집은 2011년 2명의 신입교사를 임용하였고, 그 과정을 살펴보

면 어린이집의 모든 교사가 면접에 참여하여 함께 일할 교사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기준은 기존교사와 잘 화합할 수 있는 성격이 원만한 교사를 뽑는데 있었다고 한다. 하늘 어린이집은 주 1회의 장학(원장 혹은 원감)과 분기별 연구수업을 통하여 교사들이 부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동료교사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2) 만 1세 토끼반과 하루일과

만 1세 영아반은 한 교실에서 2반(토끼반, 사슴반)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2반 중 토끼반은 초임교사, 사슴반은 13년차의 경력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 한 반의 체제는 4명의 원아와 1명의 교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대상인 토끼반은 남아 2명과 여아 2명의 영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 1세반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실환경은 쌓기 놀이를 할 수 있는 블록영역과, 역할놀이 영역, 조작영역과 음률영역, 책 보기영역, 미술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끼반의 전형적인 하루일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토끼반 하루 일과의 예

시간	활동
9:00 ~ 9:30	등원 및 조용한 놀이
9:30 ~ 10:00	오전간식
10:00 ~ 11:00	오전 실내 자유선택활동
11:00 ~ 11:30	정리, 배변, 집단 활동 (동화, 손 유희, 노래 등)
11:30 ~ 12:30	점심식사
12:30 ~ 13:30	실외 자유선택활동
13:30 ~ 14:00	정리, 배변, 낮잠준비
14:00 ~ 15:30	낮잠
15:30 ~ 16:30	낮잠 깨기, 배변, 오후간식
16:30 ~ 17:30	오후 실내 자유선택활동, 개별귀가

토끼반의 일과를 살펴보면 오전 7시 30분을 시작하여 9시 30분까지 부모와 함께 개별적으로 등원을 한다. 교사는 등원한 영아와 인사를 나누며 건강 상태를 확인 한 후 손 씻기를 돕고 화장실에서 배변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9시 25분이 되면 교사는 간식을 준비하고, 영아들의 손 씻기를 돕고 함께 간식을 먹는다. 10시가 되면 교사는 간식을 정리하고 오전 실내 자유선택활동을 할 수 있게 교구를 준비한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교사는 놀이를 하는 영아에게 상호작용을 해주고, 위험하게 놀이를 하거나 다투는 영아는 없는지 교실을 살피며 영아들과 함께 놀이를 한다. 11시가 되면 교사는 영아들이 함께 정리 할 수 있도록 블록들을 손에 들려주고 격려해 주며 영아들과 함께 정리를 마친다. 정리 후 다 함께 화장실에 가 배변 활동을 돕고, 기저귀를 하는 영아들은 기저귀를 가는 시간을 갖는다. 11시 30분 다 함께 모여 앉아 교사와 함께 간단한 손 유희와 동화책을 읽는 시간을 갖고 점심 준비를 한 후 영아들의 식사를 돕는다. 식사가 끝나면 영아들을 한명씩 도와 양치질과 세수를 도와준 후 교

사는 영아들의 놀이를 지켜보며 점심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친 교사는 식판을 정리한 후 영아들의 놀이를 정리 시킨다. 12시 30분이 되면 체육실이나 놀이터로 내려가 실외 선택활동 시간을 갖는다. 13시 30분에 실외 놀이를 정리하고 교실로 돌아와 영아들은 손을 씻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낮잠 준비를 한다. 교사는 영아들의 이불을 펴고, 실외를 어둡게 한 후 조용한 음악을 틀어 영아들이 낮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교사는 영아들을 토닥여 주거나 조용히 동화책을 읽어 주며 영아들이 낮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

영아들이 모두 잠이 들면 교사는 양치를 하거나 간단히 차를 한잔 마시고 교실에서 영아들의 개인 수첩에 메모를 쓴다. 낮잠시간을 활용하여 교사는 회의를 하기도 하고, 교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보육계획안을 작성하거나, 수업준비를 한다.

15시 30분이 되면 밝은 음악을 틀어 영아들을 깨우기 시작한다. 먼저 일어난 영아들의 배변 활동을 돕고 이불을 정리하고 간식을 준비한다. 낮잠에서 일어난 영아들은 간식을 먹은 후 개인 물건을 교사와 함께 정리한다. 간식을 먹고 16시부터 오후 실내 자유 선택활동을 하기도 하고 하원을 하는 영아도 있다. 17시 이후 1~2명의 영아가 남으면 함께 운영하는 사슴반 선배교사가 영아들을 데리고 실외활동을 나가면 이 교사는 교실 청소를 한다.

17시 30분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남은 영아는 통합 보육실로 가게 되고 교사는 영아와 인사를 한 후 교사실로 내려간다. 이 후 교사는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을 한다.

3) 만 2세 기린반과 하루 일과

만 2세 기린반의 영아들을 살펴보면 남아 6명과 여아 2명이고, 1명의 담임교사로 구성 되어있다. 기린반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실 환경은 쌓기 놀이를 할 수 있는 블록영역과, 역할 놀이 영역, 조작영역과 음률영역, 책보기 영역, 미술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린반의 전형적인 하루일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기린반 하루 일과의 예

시간	활동
9:00 ~ 9:30	등원 및 조용한 놀이
9:30 ~ 10:00	오전간식
10:00 ~ 11:00	하루 일과 계획, 오전 실내 자유선택활동
11:00 ~ 11:30	정리, 배변, 집단 활동 (동화, 손 유희, 노래 등)
11:30 ~ 12:30	점심식사
12:30 ~ 13:30	실외 자유선택활동
13:30 ~ 14:00	정리, 배변, 낮잠준비
14:00 ~ 15:30	낮잠
15:30 ~ 16:30	낮잠 깨기, 배변, 오후간식
16:30 ~ 17:30	오후 실내 자유선택활동, 개별귀가

기린반의 일과를 살펴보면 오전 7시 30분을 시작하여 9시 30분까지 부모와 함께 개별적으로 등원을 한다. 등원한 영아들은 교실 밖의 개인 장에 옷을 정리 한 후 가방에서 수첩과 개인 물 컵, 칫솔, 개인 수건을 가지고 교실로 들어와 제 자리에 스스로 정리한다. 교사는 등원한 영아와 인사를 나누며 건강 상태를 확인 한 후 손 씻기를 돕고 화장실에서 배변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9시 20분이 되면 교사는 간식을 준비하고 먼저 온 영아들부터

개별적으로 간식을 먹고 정리를 한 후 책을 읽는다. 10시가 되면 교사는 간식을 정리하고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다.

영아들은 모두 모여 앉아 교사와 함께 하루 일과에 대해 알아 본 후 오전 실내 자유선택활동을 시작한다. 교사는 그날의 주요 활동을 준비해 주고 영아들과 함께 놀이를 한다. 영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활동을 하고, 교사는 영아들과 함께 놀이 하면서도 다치거나, 싸우는 영아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교실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11시 10분이 되면 정리 노래를 불러 준다. 교사는 영아들이 함께 정리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며 영아들과 함께 정리를 마친 후 다 함께 모여 앉아 교사와 함께 집단 활동을 한다. 그 후 화장실에서 배변 활동을 돕고, 손을 씻은 후 점심 준비를 한다. 영아들은 교사가 배식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 배식이 끝나면 스스로 포크와 수저를 챙기고 ‘잘 먹겠습니다’ 인사 한 후 점심식사를 하며 교사도 영아들의 식사를 도우며 함께 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난 후 영아들을 한명씩 도와 양치질과 세수를 도와 주고 실외 자유 선택 활동을 나간다. 교사가 준비한 실외 자유 선택 활동을 한 후 13시 30분 교실로 돌아와 영아들은 손을 씻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낮잠 준비를 한다. 영아들은 각자의 이불을 찾아 놓고 교사는 영아들을 토닥여 주거나 조용히 동화책을 읽어 주며 영아들이 낮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

영아들이 모두 잠이 들면 교사는 양치를 하거나 간단히 차를 한잔 마시고 교실에서 영아들의 개인 수첩에 메모를 쓴다. 낮잠시간을 활용하여 교사는 회의를 하기도 하고, 교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보육계획안을 작성하거나, 수업준비를 한다.

15시 30분이 되면 밝은 음악을 틀어 영아들을 깨우기 시작한다. 먼저 일어난 영아들의 배변 활동을 돕고 이불을 정리하고 간식을 준비한다. 낮잠에서 일어난 영아들은 간식을 먹은 후 개인 물건을 교사와 함께 정리한다. 간식을 먹고 16시부터 오후 실내 자유 선택활동을 하기도 하고 하원을 하는 영아도 있다. 17시 이후 2~3명의 영아가 남으면 1층에 있는 같은 연령인

다람쥐반으로 영아들을 데려간다. 기린반 영아들이 다람쥐반에 있는 동안 교사가 이 교사는 교실 청소를 한다. 청소를 마치면 기린반과 다람쥐반에 남아 있던 영아들이 올라와 조용한 놀이를 한 후 17시 30분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남은 영아는 통합 보육실로 인솔한다. 교사는 영아와 인사를 한 후 교사실로 내려 가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을 한다.

3. 자료 수집

1) 자료 수집의 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연구자는 연구 현장인 하늘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원장선생님과의 사전면담을 가졌다. 원장선생님과의 면담에서는 연구 목적과 내용,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연구 승인을 받았다. 그 후에는 연구 참여자인 미혼 초임교사들을 소개받고 어린이집에서 관찰을 할 수 있는 날과 어린이집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안내받았다. 그 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어린이집 밖에서 1회의 사전 만남을 가졌고 그 시간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며 서로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연구자는 예비관찰 기간 동안에 연구자가 연구하고자하는 연구문제가 연구기관과 연구 참여자에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연구 대상 반의 영아들과도 미리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는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였으며, 참여관찰은 현장 약기를 사용하여 메모한 후 그날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2) 참여관찰

미혼 초임교사들이 적응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교직 현장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자는 일주일에 두 번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미혼 초임교사들이 영아들과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그들의 일과, 영아와의 대화 등의 하루일과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들을 현장일지로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그 자료를 통하여 궁금한 점을 따로 메모하여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참여관찰은 크게 두 국면으로 이루어졌다. 1차 참여관찰은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1주 동안 한교사당 1-2회 관찰하였으며, 1회 3시간 이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연구자는 표면적인 조사를 위한 기술적인 관찰(descriptive observation)의 형식을 취하여 관찰 상황을 가능한 모두 기록하였고 1, 2세반의 영아와 영아교사들의 행동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연구의 범위를 좁혀나갔다. 2차 참여관찰은 5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각 교사 당 주 1회(총 주 2회), 1회 4시간씩 실시하고 1차 관찰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집중(focus observation) 및 정선관찰의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영아교사가 교직수행의 다양한 맥락 안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갈등 및 표현 등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찰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즉시 전사하여 자료화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문들이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메모하였다가 다음 관찰시 연구 참여자에게 물어보고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자료수집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3) 심층면담

면담은 인간 행동의 맥락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며, 이를 통해 연구자가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Seidman, 2006). 따라서 미혼 초임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교직을 수행하면서 겪는 심리적인 갈등과 스트레스, 연구 참여자의 행동의 의미와 내면에서 느낀 감정 등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완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Geoffrey, 2005)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참여관찰을 수행하는 동안 공식적, 비공식적인 형태로 실시하였다. 공식적인 면담은 참여관찰 전사내용을 중심으로 월1~2회(총6회) 퇴근 후 어린이집 밖에서 진행하였으며 비공식적인 면담은 관찰내용이나 교사의 정서 상태, 갈등, 어려움 등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마다 대화의 형태로 수시로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이나 약기의 과정을 통해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그리하여 초임교사가 느끼고 경험한 상황들을 있는 대로 표현 할 수 있도록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공식적인 면담은 한 교사 당 6회, 1회당 1시간 이상으로 이루어졌다. 공식적인 면담 이외에도 교사의 행동이나 정서적인 변화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메모를 한 후 낮잠시간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면담을 가졌다. 또한 영아교사들의 공통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1회의 공동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하며 연구자는 내용을 약기하고 녹음한 후 전사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일일보육 계획안, 일과평가 분석

일일보육 계획안을 분석함으로써 교사들이 일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사들이 작성한 하루일과 평가를 분석하여 영아들의 발달과 활동수준이 적당하였는지, 일과시간 배분은 잘 하였는지, 그날 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과 발달수준에 맞는 활동으로 질적으로 나아진 자기평가를 통해 미혼 초임교사들의 적응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다.

4. 자료의 타당화 작업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 개념은 양적 연구와는 그 개념이 다른 것으로 타당도 작업에 대한 일련의 학자들의 제안을 참고로 타당도 작업을 실행하였다. Lincoln과 Guba(1985, 곽승주, 2008에서 재인용)는 신뢰성 준거들로 집중 관찰, 트라이앵글레이션, 심층기술, 참조자료 사용,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작업, 반성적 주관성 등 7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뢰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1) 삼각측정법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미혼 초임교사의 심리적 갈등, 정서표현 및 특성을 기술하고 해석하는데 야기될 수 있는 해석의 판단 오류를 줄이기 위해 참여관찰, 면담, 일일보육계획안, 일과평가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2) 심층적 기술

본 연구자는 세밀한 묘사를 위해 가능한 관찰기록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남기기도 하고 세부적인 묘사를 위해 행동이 일어나는 전과 후의 맥락적 정보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3)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검토

연구 참여자이면서 정보제공자인 미혼 초임교사에게 초기에는 현장기록을 중심으로, 이후에는 범주화와 해석에 대한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자료의 의미와 분석이 왜곡되는 것을 피하였다.

4) 다른 동료연구자들과 논의해 보기

본 연구의 배경에 대해 잘 알거나 깊은 지식을 소유한 동료 연구자에게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 정확한지를 평가받아봄으로써 연구자가 놓쳐 버린 연구문제, 관점, 아이디어들을 상기시키고 보다 신선하고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다.

5) 자기반성 과정

자기반성은 연구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모습들을 들여다봄으로써 주관적으로 대상자들의 의미를 단정 짓지 않고자 하였다.

5.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면담 전사본과, 관찰 전사본, 관찰일지, 일일보육 계획안, 일과평가 등이다. 메모된 자료는 당일 전사하고 전사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단어나 문장, 다양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연구자의 느낌을 메모하여 전사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자 내부자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좀 더 심층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의 과정을 반복하여 현장 맥락과 상황 정의, 과정, 관계들, 활동, 전략, 의미 등을 기초(Bogdan & Biklen, 2003; 권경숙, 2008에서 재인용) 주제별 약호화 과정을 통해 범주화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와 질적 연구를 하는 다른 동료들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IV. 결과 및 해석

1. 미혼 초임교사가 영아교사로서 갖는 기대감

연구 참여자인 미혼 초임교사들은 3년간의 대학교육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한 달간의 실습 과정을 거쳐 영아교사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들은 보육실습을 경험하면서 실습지도 교사가 노련하게 영아들을 통솔하고, 교사의 말을 잘 따르는 영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교사가 되어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또한 반대로 영아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보았을 때는 ‘나는 저런 교사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미래에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다짐을 하며 교직에 입문하게 됐다고 한다. 또한 교사들은 실습을 하면서 낯선 곳을 방문한 손님인 듯 불편한 감정을 느꼈고, 그러면서 ‘내 반, 내 아이들이 생긴다면..?’과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하였다. 육아경험이 없는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을 실제로 접해 본 경험 보다는 이론적 지식에 기대어 영아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대학교육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영아들은 교사를 잘 따를 거라는 기대와 함께 영아들은 그저 작고 사랑스러운 존재여서 사랑으로 대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직에 입문하였다고 했다. 이렇게 교직에 입문한 미혼 초임교사들은 넘치는 의욕과 책임감을 갖고 어린이집에서 마련된 초임교사교육을 받으며 담임교사로서의 준비를 시작하였다고 했다.

1) 무한한 애정으로 영아들만을 사랑 할 것이라 생각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교사가 갖춰야할 중요한 덕목이 바로 영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비교사 과정을 거치며 배우게 된 영아 교육 과정에 사랑을 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영아들도 사랑으로 대하는 교사를 좋아하고 잘 따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그들이 보았던 선배교사와는 달리 언제나 친절한 교사가 될 거라는 다짐을 했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현직교사가 되기 전 어떠한 환경에서도 무한한 애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것이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어린이집의 영아교사로서 첫발을 디었다고 한다.

졸업 후 교사가 되었을 때 가진 철학은 무한애정으로 아이들만 사랑하자. 어려울 거라는 생각 보다는 마음만 먹으면 다 될 거라 생각했어요. 사랑만 주면 아이들은 잘 따라 오겠지?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상호작용을 하면 따라오고, 수업도 계획한 데로 따라 올 거라 생각했어요.

(2011. 8. 16. 박 교사 면담)

박 교사는 어려움 없이 영아들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며 마음먹은 대로 될 거라는 의욕을 가지고 영아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고 하였다. 졸업 후 박 교사는 영아교사로서의 생활이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 보다는 무엇이든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의욕이 컸다고 하였다. 또한 이 교사는 실습을 경험하며 무뚝뚝하거나 영아들에게 화를 내는 교사들을 보면서 자신은 교사가 된 후 사랑과 긍정적인 태도로 영아들을 대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였다고 한다.

처음 실습 갔을 때 담임선생님이 좀 딱딱하셔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없어 보였어요. 인사하고, 계획하고, 할 일만 딱 하시고, 개인적인 상호작용도 없고, 차갑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유치원교사는 아이들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만 대하셔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느꼈어요. 전문성은 느껴지지만 사랑이 없는... 원래 교사가 이런 건가 하는 의문도 들고, 이 선생님만 그런가? 싶기도 하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애정표현과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교사가 되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줘야지 생각했어요. (2011. 8. 16. 이 교사 면담)

이 교사는 딱딱하고 차갑게 대하는 실습 지도교사를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배우기는 했지만 영아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교사로서의 모습은 볼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고 한다. 이 교사는 영아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교사가 더 좋은 교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교사는 졸업 후 교사가 된다면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는 영아들에게 따뜻한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그들은 언제나 영아들에게 무한애정을 줄 거라 다짐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경험해보니 생각한대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많음을 느끼고 있었으며 막상 교사가 되고나니 졸업 후 다짐처럼 항상 사랑으로 영아들을 보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무한애정 애정만으로는 좀... 학기 초에는 '이러면 안 돼'라고 좋게 이야기한 후 안아주고 같이 놀았어요. 계속 그렇게 했는데 선배선생님이 좀 엄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엄하게 말하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까?' 아이들이 교사를 무서워하지 않고 쉽게 볼 거라고 하니깐... 그때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고 있는 건가? 무한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 (2011. 8. 16. 박 교사 면담)

박 교사는 평상시 뿐 아니라 영아들의 문제행동도 온화하고 친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무섭고 엄한 방법이 아니면 영아들이 쉽게 볼 거라는 선배교사의 말에 고민이 되었다고 한다. 박 교사는 ‘내가 생각한 교육이 옳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아에게 강하게 대하는 선배의 모습에서 거부감을 느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신이 기피했던 강한태도로 영아들을 대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학기 초에 선배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강하게 대할 때 학부 때 그렇게 안 배워서 그 모습이 보기가 좀 그랬어요. 교사 기분에 따라 아이들한테 강하게 할 때 좀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 보니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2011. 7. 11. 박 교사 면담)

박 교사는 교직생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선배교사들과는 다르게 영아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주고 싶었다. 그러나 초임교사들도 영아들과 함께하는 생활 안에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박 교사도 처음의 결심과 달리 영아들에게 강하게 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초임교사들도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영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교사에게 더 응석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면서 교사들을 지치게 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초임교사들은 그들이 가졌던 신념과 다르게 영아들에게 감정적이고 엄한 태도로 대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방법이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였다.

학기 초에 기현이가 애교도 많고 잘 안기고 그랬는데, 말썽을 부릴 때 제가 강하게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깐 기현이가 더 어긋나가고, ‘선생님 싫어, 가!’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 기현이가 저도 마냥 예쁘지만은 않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2011. 7. 4. 이 교사 면담)

영아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교사들은 영아들을 훈육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교사의 몸과 마음도 지치다 보니 처음의 다짐처럼 언제나 긍정적인 일수만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말썽을 부리는 영아에게 강한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그런 교사의 강한태도에 영아는 교사를 거부했으며 그런 영아를 보며 교사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의 반복되면서 그들은 영아들과의 관계가 자신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초임교사들은 이러한 적응과정이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그러한 상황도 다시 영아들로 인해 극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어리고 아기다운 영아들의 모습에서 다시 영아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마냥 때를 쓰는 아이를 보고 이런 애도 있구나 하는 충격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상황에서는 화가 나고 힘든데 낮잠 잘 때 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자기 전에 ‘토닥여 주세요.’해서 토닥여 줄 때... 그럴 때보면 아직 애기구나... 하는 생각에 맘이 풀려요.

(2011. 8. 16. 이 교사 면담)

참다못해 한번 화내고 난 후 뒤 돌아 호흡을 고르고 있어요. 그런 저에게 아이가 와서 방긱방긱 웃어줘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 맛에 살지..’하고 웃게 돼요. 웃고, 애교 부리고, 안기고, 뽀뽀해줄 때... 너무 사랑스럽고 힘이 나요.

(2011. 8. 16. 박 교사 면담)

교사들은 영아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가도, 잠자는 영아의 모습에서, 방긱방긱 웃는 영아들의 미소에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고 다시 영아들을 사랑으로 대할 거라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하루 종일 교사를 힘들게 한 영아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다가와 안기고, 아직도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지쳐 잠드는 걸 보면 영아들과의 힘들었던 일들이 잊혀 진

다고 말하였다. 교사들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기쁨과, 절망 사이를 오고 가지만 결국 영아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사랑스러움에서 힘든 일을 이겨내고 있었다. 처음 자신의 생각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해 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그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 영아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다.

2) 영아들은 무조건 내편일 거라는 기대

초임교사들은 교사가 되기 전에는 사회화 되지 않은 어린 영아일수록 성인의 말을 잘 듣고, 대답도 잘하며, 성인의 행동을 잘 따를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실습을 경험하며 실습 지도교사가 영아들을 통솔하는 모습과 실습 지도교사를 잘 따르는 영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기억을 떠올리며 ‘나도 교사가 되면 실습 지도교사처럼 영아들을 잘 통솔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반 영아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를 거야.’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그런 설렘을 가지고 교직에 들어섰다고 한다.

실습 때 만 2세를 했었는데 그 때가 8월이라 어느 정도 생활도 익숙해지고 선생님도 잘 따르고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4살 정도의 아이들은 다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선생님의 말을 법칙으로 알고 잘 따라오는 구나...’ 생각했죠. 만 2세를 맡고 나서 실습 때 봤던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따라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011. 8. 5. 이 교사 면담)

이 교사는 8월에 만 2세반에서 실습을 하였다. 그 실습과정에서 만난 영아들이 이 교사가 처음 만난 영아들이었고, 담임이 된 후에도 비교 할 수 있는 대상도 그들 밖에 없었다. 이 교사는 실습 때 본 영아들이 만 2세의

평균 수준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교사는 자신이 만날 영아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를 거라는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교사가 맡은 2세 영아들은 3월에 처음 어린이집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만 2세와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교사는 어린이집에 처음 온 영아들이 교사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데 까지 어느 정도의 시기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또한 초임교사들은 학기 초에 영아들의 적응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교사를 낯설어 하고, 어린이집에 적응을 못해 우는 영아들을 보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였다.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이 선생님과의 첫 만남에서 낯설긴 하지만 호기심을 갖고 교사에게 다가와 함께 놀이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영아들은 교사를 낯선 사람, 엄마와 떨어지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울고 교사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영아들과 첫 만남에 함께 놀이할 생각을 한 것과 달리 엄마와 헤어진 영아들을 달래느라 힘이 들었고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오리엔테이션 후에 엄마랑 헤어지고 아이들만 남았는데 다 우는 거예요.
휴...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을 해서 좀 달라고 싶은데
애가 내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우니까 당황이 되는 거죠.
무얼 해보기도 전에... 거의 한 달간은 부모님이 함께 놀이하다 나가시면
30~40분 정도를 울었어요. (2011. 8. 16. 박 교사 면담)

영아들의 울음을 예상은 했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표현에서 그 때 심정을 이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해보려는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영아들은 교사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엄마와 헤어진 후 교사를 거부하고 우는 영아들의 모습에 당황스럽고, 민망하기도 했다는 표현을 했다. 우는 영아

보다는 웃고 함께 놀이하는 사랑스러운 영아들의 모습을 기대한 교사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기대와 다른 어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

영아들과의 첫 만남 이후 초임교사들은 영아들과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교사들은 영아가 적응만하면 자신을 잘 따를 거라 기대했다.

또한 영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 주고 친절하게 해주면 영아들을 통솔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영아들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고 한다. 모든 의견을 수용해 주는 교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영아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해 달라고 떼를 썼다고 한다.

전 무조건 사랑 많이 주고 그러면 잘 따라 올 거라 생각 했었는데 오히려 잘 해 주니까 아이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고 안 따라서 실망했어요. 아이들 생각을 다 반영해 주니까 오히려 다 자기 마음대로 인거예요. 너무 정신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실습 때 봤던 선생님처럼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1. 6. 1. 이 교사 면담)

무조건 사랑해 주면 그 만큼 영아들도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영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사랑해주고, 무슨 말을 해도 수용해 주는 교사를 어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엇이든 수용해주는 교사에게 영아들은 떼를 쓰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된 것이다.

이 교사는 실습 때 보았던 영아들처럼 교사를 잘 따르고, 교사의 말을 법칙으로 아는 순한 영아들을 기대했으나 이 교사가 맡은 영아들은 자신의 욕구를 강하게 내세우는 예상과 정반대인 강한 영아들이었다. 그로 인해 이 교사는 지쳐가고 있었다.

(교사가 잠시 교실 밖을 나간 사이 기현이가 현재를 때렸다.)

이 교사 : “이리오세요. 친구 때리지 않아요.”

(교사가 친절하게 기현이에게 타일렀으나 기현이는 교사 말을 듣지 않고 창밖을 바라본다.)

이 교사 : 친구 때리는 거 아니야.

기 현 :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야! (소리를 지른다.)

(2011. 6. 9. 기린반 관찰)

이 교사는 친절한 말로 기현이를 타일렀지만 오히려 기현이는 교사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교사가 한 번 더 말하자 큰소리로 반항하였다. 이 교사는 아직 어린 만 2세 영아가 반항하고 저항하는 모습 속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면을 품고 태어나는 것인가?’(선악설)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았다고 한다. 이 교사가 지금껏 생각한 영아들은 작고 귀엽고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선한존재(성선설)라고만 믿어왔는데 영아들과 생활해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이렇듯 이 교사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영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처음 기대와 반대되는 영아들의 태도에 실망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영아와 교사가 서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아들은 교사의 수용적인 태도에 긍정적으로 따르기 보단 그런 교사에게 더 떼를 부리고 자신의 주장을 내 세우며 더 잘 해 주기를 원하는 영아들을 보며 자신이 기대한 영아들의 선한 모습과는 다르다는걸 느끼고 있었다.

3) 내 반과 내 아이들이 생긴다는 기대

교사라면 누구나 처음 담임을 맞아 내 반에서 내 아이들을 처음 만나던 그때의 설렘을 기억할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초임교사들도 ‘어떻게 생긴 아이가 올까?’ ‘선생님과 친구들을 좋아할까?’ ‘내가 준비한 놀이를 재미있게

할까?’와 같은 궁금증과 설레는 기분을 가졌다고 하였다.

이렇듯 미혼 초임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기대감은 내 반과 내 아이들이 생긴다는 것이었고, 그들은 기대감과 동시에 책임감과 부담감도 함께 느꼈다고 하였다.

처음 반 배정을 받고 난 후, 내 아이들이 생겼구나... 그리고 내게 주어진 공간에서 내 반을 주도적으로 꾸려 나가고, 내 울타리 안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감... 등의 여러 감정이 들었어요. (2011. 7. 11. 이 교사 면담)

이 교사는 더 이상 실습현장의 보조교사 역할이 아닌 자기 주도로 운영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 기쁨과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내 반과 내 아이들이 생겼다는 것을 기쁘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담임교사로서 내 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었다.

박 교사 : 면접 볼 때는 그저 설렘만 있었는데, 막상 반을 맡고 보니깐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이 교사 :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도 걱정되고...

연구자 : 걱정이 더 컸나요? 아님 설렘이나 기대감?

박 교사, 이 교사 : 일단은 걱정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2011. 8. 12. 공동 면담)

설렘으로 시작된 교사로서의 첫 걸음은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감정의 이유는 영아들뿐 아니라 영아를 맡기는 부모님에게 미숙한 모습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는 것과 영아들

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함에 있었다.

두려움이 컸죠. 경험이 없으니... 기저귀를 아직까지 안 떼고 온데요. 정말 아기잖아요. 그 때 두려웠죠. 기저귀 한 번도 안 갈아봤는데... (중략) '몰라...배우면 될 거야.' 생각했어요. 영아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2011. 8. 5. 박 교사 면담)

영아교사로 임용되긴 했지만 그들은 영아교사로서 필요한 기술들을 경험해 보지 못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유아교육 전공자였고, 대학교육에서는 유아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육아의 경험이 없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영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아반 교사가 되었고 앞으로는 혼자서 영아들을 이끌어야 했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듯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으므로 스스로 영아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문서적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영아들의 발달사항, 상호작용, 어린이집에서의 생활 등을 알아보는 노력을 했다고 한다.

제가 영아반을 안 말아 봤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가장 걱정 됐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중략) 책 보면서 '쉽네...'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 직접 적용해보니 '음... 다르네...' 했죠. (2011. 8. 5. 박 교사 면담)

원장 선생님께서 발달단계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셔서 책도 찾아보고 정리도 해보면서 '만 1세, 2세가 이렇군...' 하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영아반 어때요?' 하고 검색하고 읽어보고... 만1세는 손이 많이 가지만 아이들이 예쁘고 만2세는 학기 초에는 조금 힘들지만 적응하면 잘

따라 온다고 나온 것 보고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었어요.

(2011. 8. 5. 이 교사 면담)

박 교사는 영아와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미리 학습하였고, 학습을 통해 영아들을 이해 한 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교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른 이들의 경험담을 보며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두 교사 모두 영아들에 대한 학습을 하며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자신감을 얻은 교사들은 의욕을 가지고 영아들과의 첫 만남이 될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교사들은 영아들의 사진을 보며 얼굴과 이름을 익히고 혼자 모의수업도 해보면서 처음이지만 담임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겠다는 다짐으로 첫 수업을 준비했다고 하였다.

첫날 많이 떨려 전서 전날 미리 대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엄마 보고 영아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연습 했어요. 그런데 원장선생님께서 너무 길다고 해서 수정하다 보니 제가 외운 것과 달라져서 당황되더라고요. 교실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몸이 막 떨릴 것 같이 많이 긴장 되서 손을 꼭 잡고 했어요.(중략)

(2011. 8. 5. 이 교사 면담)

이 교사 뿐 아니라 박 교사도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그린 후 대본을 짜고 밤새 거울을 보고 모의수업을 하면서 수업 내용을 모두 외었다고 한다. 오리엔테이션 준비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연구자에게까지 그날 그들이 가졌던 열정과 떨림이 전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미혼 초임교사들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론을 학습 하고, 수업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았지만 영아들을 만나 실제로 수업을 해 보니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외운 대사처럼 영아들이 반응해 주지 않았고, 상황도 생각과 똑같지 않았다. 또한 부모님들도 함께 참

석하셔서 인지 교사들은 너무 떨려 준비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영아들도 교사에게 관심이 없어 생각처럼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생각처럼 첫 수업을 원활하지 못 한 초임교사들은 ‘앞으로 반 운영을 잘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아쉬움과 걱정으로 마무리한 오리엔테이션이었지만 처음 만난 내 반 아이들에 대한 기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대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연 구 :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이 교사 :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귀엽다, 말은 할 수 있을까?(중략) ‘그래... 너희들 이구나~ 잘 지내보자’ 속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많이 친해져야 겠다는 생각도 했구요.

박 교사 :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들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 교사 : 저는 내 반 안에 내 아이들이 있구나... 나의 울타리가 생겼다는...

박 교사 : 맞아. 내가 뭔가 맡았다는, 내가 이제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기대감, 발달을 시켜야 된다는 책임감.

(2011. 8. 12. 공동 면담)

교사들은 미리 영아들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보며 ‘어떤 아이일까’에 대한 상상을 했던 영아들을 직접 만나보니 생각보다 귀엽고 작은 느낌이였다. 교사들이 영아들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잘 지내보자, 친하게 지내보자’는 생각이었고, 내 울타리 안에서 이 작은 영아들의 발달을 도와주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미혼 초임교사들은 내 반과 내 아이들이 생긴다는 기대감은 설렘과 책임감, 두려움과 떨림의 과정을 반복하며 교직에 첫 발을 들어서고 있었다.

2. 미혼 초임교사가 영아반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미혼 초임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 처음 하는 것들이었다. 이들은 영아반 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저귀 갈기, 간식, 점심식사, 영아들과 놀이하기 등의 일상이 미혼이며 초임교사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렇듯 영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미혼 초임교사들은 교직에 입문 하자마자 영아생활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영아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은 이론적 지식으로 깨우치기 보다는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영아들을 보육하는데 필요한 경험들이 숙지되기 전인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들과 생활하는 때 순간이 어려움으로 다가 왔다고 하였다.

1) 영아의 실질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부족

미혼 초임교사들은 대학교육에서 매 학기마다 영아발달에 대한 학습을 여러번 반복하였다고 했다. 이렇듯 그들은 이론적으로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영아에 대한 경험이 없는 미혼 초임교사들이다. 영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이들은 영아의 발달을 더 자세히 익히기 위해 교직에 입문 한 후 해당 영아들의 발달에 대해 다시 학습하였다고 하였다.

처음에 영아반을 맡고 영아발달에 대해 공부를 했었어요. 그 때 책에서 본 영아들은 정말 아기였어요. 말도 잘 못하고, 두발모아 뛰기도 못한다고 하는 정도로...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말도 잘하고, 두발모아 뛰기도 쉽게 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아이들이 정말 만1세의 발달수준인가? 하

는 의문이 들어요. 아니면 우리 반 아이들이 수준이 높은 것인지? 평균인 건지? 아이들의 발달을 이해하는 게 아직은 좀 힘들어요.

(2011. 6. 1. 박 교사 면담)

미혼 초임교사들이 실제로 만난 영아들은 이론적으로 학습한 영아들과는 차이가 컸다고 하였다. 이론서에서 정의한 영아보다 신체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하였으며 언어발달에서도 이론적 정의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들은 우리반 영아들이 특별히 빠른 건지 아니면 영아들이 평균인 것인지를 비교해 볼 대상도 없었다. 오직 이론서에서만 영아들을 접했으므로 그들은 생각과 실제 영아들의 수준 차이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영아들의 발달수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들은 영아들과 상호작용하기, 수업 계획하기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한다.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수업을 계획하지만 영아들이 모르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말의 속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학교에서 모의수업을 했을 때도 만 4, 5세를 많이 해서 말의 속도나 언어 선택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처음 계획안을 작성할 때 실수했던 게 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뭇잎처럼 생겼지?'라고 썼는데 원장선생님께서 영아들은 나뭇잎이라는 단어를 모른데요. 그때 진짜 충격 받았어요. 이정도도 모를 줄이야. 그 때부터 계획안 작성할 때 단어도 한 번 더 확인 해 보고 상호작용도...(중략) 단어선택이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말의 속도도..

(2011. 8. 16. 박 교사 면담)

박 교사는 당연히 알거라 생각했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영아들이 모를 거란 생각을 못 한 것이다. 또한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획했지만 선배교사는 영아들에게 어려운 활동이라고 평가 했다고 한다.

그렇게 갈피를 못 잡던 박 교사는 ‘영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떤 활동을 준비해줘야 하는 걸까?’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고 했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미혼 초임교사들은 대학교육에서 영아가 아닌 유아 위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영아보다는 유아 수준에 맞는 단어와 속도로 상호작용 하게 되었고, 그러한 교사의 언어가 영아와의 소통에 문제가 된 것이다. 언어 뿐 아니라 대학교육에서 유아 위주의 활동을 배웠던 그들은 영아에 맞는 활동을 찾는 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아반을 담당하는 것은 처음이라... 실습도 부담임도 했었는데 모두 유아반에서 해서 영아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발달을 이해하는 게 아직은 좀 힘들어요. 활동을 찾을 때도 유아중심이 많아서, 재밌을 것 같은 것은 좀 어렵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아이들 수준에 맞게 좀 바꿔요. 시트지를 스티커로... 그래도 활동 자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수준에 맞는 활동을 찾기가 어려워요. (2011. 6. 1. 박 교사 면담)

박 교사는 대학생활 동안 부담임과 실습을 경험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미리 익혔다고 생각했지만 모두 유아반에서의 경험이라 박 교사의 사전경험을 영아에게 적용해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미혼 초임교사들은 실습과 대학교육을 통해 배운 활동들을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운 활동은 영아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활동 수준을 낮추어 제시해 주어야 했으며 그마저도 영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제한이 있었다.

영아들의 발달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는 영아교사들은 영아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유아들의 활동을 해당 연령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업활동의 개발 뿐 아니라 교사들은 각기 다른 영아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개월 수에 따라 발달의 차이를 보이므로 영아들마다의 각기 다른 발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교사는 서로 다른 발달을 보이는 영아들에

게 어느 수준에 맞춰줘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색깔 접시에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 보는 꼴라쥬 활동을 하고 있다. 만 2세반에서 월령이 가장 빠른 소연이는 교사의 도움 없이 혼자 풀을 짜고 좋아하는 재료를 붙이고 있다. 지훈이는 만2세 반 아이 중 신체, 언어적인 면에서 발달이 가장 늦다. 지훈이는 혼자 풀을 짜는 것이 어렵다. 재료를 만지작 거리다 풀을 잡는다. 지훈이는 풀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힘을 주어 접시에 한 가득 풀을 짜 놓았다. (2011. 7. 8. 기린반 관찰 중)

연령이 빠른 소연이는 활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재료를 고르고, 교사의 도움 없이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발달이 늦은 지훈이는 자신의 발달수준보다 높은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활동을 이해하지 못한 지훈이는 교사가 계획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함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같은 연령이지만 영아들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고, 초임 교사는 각기 다른 영아들의 발달 사이에서 적정 수준을 찾기 위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영아들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중략) 문제행동이 많은 기현이에 대해 선배선생님께서 기현이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기현이 옆에 앉아서 기현이가 하는 것에 계속 관심 가져줬어요. (중략) 처음에는 기현이만 편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상호작용하고 표현해 주었는데 방법을 바꿔 기현이에게 관심을 더 주니 기현이가 문제행동이 줄어들게 되면서 다른 아이들도 다 같이 문제행동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2011. 7. 11. 이 교사 면담)

이 교사는 모든 영아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상호작용 해주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영아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선배 교사는 기현이의 특성에 맞춰 좀 더 인정해 줄 것을 권하였다.

이 교사는 선배교사의 말대로 기현이에게 더 관심을 주자 기현이의 문제행동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다른 영아들도 함께 문제행동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교사는 영아의 특성에 이해하고 그에 맞춰주자 반 전체에 문제행동이 줄어들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론적 발달수준과 실질적 발달수준의 차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던 초임 교사들은 영아반 아이들에게 적응하면서 영아들의 개인적 발달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아들의 특성에 맞게 대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2) 의사소통의 어려움

언어적 발달이 미숙한 만 1, 2세 영아들의 언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내가 전달한 의사를 영아들이 이해했는지를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학기 초는 영아와 교사 모두가 서로에게 적응하는 과정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기 초에 영아들의 의사를 이해하고 교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영아들은 미숙하지만 자신만의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의 의사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고, 영아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하였다. 미혼 초임교사는 ‘영아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영아들이 불편하진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친구 때리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내가 한 말을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이가 친구를 때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 보고 왜 때렸냐고 하면 이 아이는 억울하잖아요. 영아의 의도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확인을 못하니, 지금 영아들을 이해하고 있는 건가? 맞는 건가? 내가 그 상황을 잘못 본 건가? 하고 많은 생각이 들어요. (2011. 7. 11. 박 교사 면담)

박 교사는 ‘지금 내가 한 말을 이해했을까?’하는 의문과 함께, 한 편으로 ‘이 아이의 의도가 정말 때리려는 것이 맞을까?’에 있었다. 영아들이 경험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표현하지 못함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사의 추측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영아가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확히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온다고 하였다.

초임교사들은 영아들과 함께하는 생활 안에서 교사는 영아들이 원하는 마음을 못 읽고, 영아들도 교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 하고 있었다.

한 달 전엔 오늘은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을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걱정하며 출근을 했었어요. 이대로 쭉 가면 서로 힘들어서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영아라 서로 소통이 안 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어려서 내 맘을 모르고, 나도 아이들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2011. 7. 11. 이 교사 면담)

이 교사는 영아들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서로에 대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교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아나, 영아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교사나 모두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사들은 영아들의 행동을 파악 한 후 그 마음을 읽어 주게 되면 문제행

동을 수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아들의 마음을 읽고 문제행동을 수정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해야 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줘야 했다. 그러나 기다림의 과정에서 교사들은 영아의 의사를 확인 받을 수 없었고, 단 기간 안에 변화된 행동을 볼 수도 없었다.

처음에는 제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아이들이 이해는 하나? 나는 계속 같은 말을 수십 번 하는데 애들은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해주는 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만 있다면... 이랬던 것 같아요. 영아들에게 확인 받을 수 없는 그 답답함 들이 큰 과제였어요. (2011. 8. 16. 박 교사 면담)

영아들의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그로인해 교사는 같은 말을 수십 번 하게 된다. 그래도 같은 행동은 반복될 때 교사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건가?’하는 의문이 들지만 그 또한 확인을 할 수 없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박 교사 : 좌절감을 느낄 때는 영아들이 싸워서 중재할 때, 내가 아이의 말을 못 읽고 있을 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니까... 처음엔 말도 안 되고 소리만 지르고 해서 힘들었어요.

이 교사 : 기현이가 학기 초에 고집 부릴 때 설명해도 무조건 때만 쓰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시해야 할지, 들어줘야 할지...

박 교사 : 그러면 안 되는데 울면 한 아이만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두게 되요.

이 교사 : 무관심 할 때는 마음이 엄청 안 좋아요. 달래주면 더 울까봐 그냥 놔두게고... (2011. 8. 12. 공동면담)

영아들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울음으로 표현한다. 울음은 영아들의 의사표현 중 하나이지만 미혼 초임교사가 영아의 울음소리만으로 우는 이유를 알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영아들은 뜻 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을 울고, 때를 쓰며 표현을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영아들을 달래고,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하지만 좀처럼 영아들이 달래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 우는 영아를 달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교사가 우는 영아만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때때로 영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갈 때도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영아반을 운영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는 영아들을 달래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아직은 상황에 따라 다른 울음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아직 언어가 발달이 안 되서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데 왜 우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울어?'라고 물어도 계속 울기만 하고... 선배선생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앞 뒤 상황을 보시고 우는 이유를 알고 '이게 불편했어?'하고 아이를 달래 주시는데 저는 상황 판단이 느린 거죠. 울음에 대한 반응을 못해줬을 때가 가장 미안했어요. 기저귀를 갈거나, 음식을 주는 거는 시간에 맞추면 되고 옆에서 선생님이하는 거 보고 따라 하면 되는데 영아들의 감정을 읽어 준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2011. 8. 5 박 교사 면담)

박 교사는 영아의 울음을 판단하지 못하고 달래도 울기만하는 영아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에 비해 선배교사는 영아의 불편한 상황을 알고 달래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교사는 영아교사로서 영아들의 감정을 읽어 준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현재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언어적으로 미성숙한 영아들의 말을 이해하고, 성인의 언어를 영아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영아에 대한 적응이 덜 된 미혼 초임교사는 영아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에 알맞은 빠르기로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영아들의 또 다른 언어인 울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3) 영아의 기본적 욕구 지원의 어려움

영아들은 식사, 배변, 잠자기 등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영아들은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습득하는 과정에 있으며 영아교사들은 이러한 영아들에게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여 삶에 필요한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욕구 해결은 영아반 운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영아교사가 숙지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육아의 경험이 없는 미혼 초임교사들은 이러한 일들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들은 영아교사로서 영아들의 기본적 욕구를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그 중 눈에 띄게 나타난 사항들은 영아들의 식사 돕기와, 배변활동 돕기, 낮잠 돕기였다.

학기 초 영아들은 아직 수저를 잘 잡지 못하고,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 등의 식습관이 잡혀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 집과 같은 방법으로 일일이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영아들을 바르게 앉아 스스로 식사하는 방법을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스스로 식사하는 법 보다 영아들은 한 자리에 앉아 식사하는 자세가 잡혀 있지 않았다. 영아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지내다 와서 그런지 식사 예절도 각기 달랐다. 그런 영아들을 바르게 앉혀 식사를 하게 되는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밥 먹을 때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4명밖에 없는데도 한입 먹고 눕고, 발을 식탁 위에 올리고, 휴... 정신이 없었어요. 한 입 먹고 교실 돌아다니고, 놀이 하고... 아무리 불러도 안와요. (2011. 8. 16 박 교사 면담)

4명의 영아이지만 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게 하기까지도 힘들었다고 한다. 눕고, 발 올리고, 돌아다니는 영아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야 하고, 먹기 싫은 영아와의 실랑이를 해야 했던 시간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한 자리에 앉아 스스로 식사를 하는 것 뿐 아니라 편식 지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영아들이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음식이지만 맛을 느껴 볼 수 있도록 양을 줄여 주었지만 그 것마저도 거부하는 영아들 때문에 어떻게 식습관 지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였다.

편식지도를 위해 싫어하는 음식도 억지로 먹여야 하는지, 아니면 식사가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기위해 강요하지 않고 영아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따른다고 하였다.

신입 영아들이 편식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반찬은 안 먹고 밥만 먹더라고요. 아니면 고기 종류 같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그런데 제가 처음 어린이집에 실습 가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남김없이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 먹여야 되나? 했는데 처음 온 아이들은 잘 안 먹더라고요. 그 때 어떡하지? 나중에는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 먹게 하면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수현이나 지환이 같은 경우는 적응 기간에 남기도록 했더니 그게 지금까지도 안 먹게 된 건가 싶기도 해요. (2011. 8. 5 이 교사 면담)

미혼 초임교사들은 어린 영아들이 바른 식습관이 길들여 질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영아들이 싫어하는 과정을 격어야 했으므로 어떻게 식습관을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또한 혼자서 여러 명의 영아들의 식습관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식사까지 해결해야하는 바쁜 점심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1시 30분 주방 선생님이 점심식사를 복도에 있는 장에 준비하고 가신다. 함께 모여 앉아 동화를 들은 만 1세반 영아들은 교사와 함께 손을 씻는다. 교사는 한 명 한 명 손 씻는 것을 도와 준 후 배식을 한다. 배식 시간에도 돌아다니는 아이, 점심을 기다리는 아이, 누워 있는 아이... 서로 다른 모습의 영아들이다. 식사시간 한 입 먹고 뱉어 버린 영아의 자리를 닦아주고, 음식을 더 달라고 하는 영아에게 배식을 돕는다. 교사는 혼자서 잘 못 먹는 도영이를 돕고 있고, 입안에 음식을 물고 인형 놀이를 하는 희연이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2, 3명의 영아들이 식사를 마친 후 자유놀이를 하고, 교사는 자유 놀이하는 영아들을 관찰하며 식사를 한다.

(2011. 6. 2. 토끼반 관찰)

이처럼 교사는 배식, 식사지도, 식사도움, 정리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혼자 소화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는 식사 도중에도 혼자 못 먹는 영아의 식사를 돕고, 편식하는 영아에게 음식을 권유하고, 옆 친구와 싸우는 영아를 중재하고, 안 먹겠다는 영아를 달래는 등 짧은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교사는 따로 식사할 시간이 없으므로 영아들과 함께 식사를 해결 한다고 했다. 교사는 식사를 하며 영아들의 바른 식습관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초임교사들은 교사가 되자마자 이렇게 여러 부분을 소화해야 했고,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해결하고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식사 뿐 아니라 교사들의 영아들의 배변 활동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아본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이론적으로나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서 익혔지 직접 실습을 받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 경험이 없는 영아교사들이 처음 기저귀를 갈아 보던 때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었다.

처음 준영이의 기저귀를 갈아 줬는데 처음 해 보는 거였어요. 선배선생님에게 물어보고 ‘할만하다.’ 생각 했었는데 그 다음날 준영이 할머니께서 기저귀를 너무 세게 채워서 빨게 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 기저귀를 보니 앞에 선이 있더라고요. ‘아! 이 선에 맞추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2011. 8. 5. 박 교사 면담)

처음엔 앞, 뒤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하고 있는 아이 것을 보니 숫자가 있는 게 앞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기저귀 한 모습을 눈으로 스캔 했어요. ‘아... 이 모양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면서 했는데 왠지 아이가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2011. 8. 5. 이 교사 면담)

그들은 기저귀를 처음 갈아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 교사는 너무 세게 해주는 실수를 하기도 했고, 이 교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영아가 기저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잘 기억한 후 그대로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이라 잘못 한건 아닌지, 영아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따랐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한 후에야 기저귀 가는 일에 익숙해 졌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기저귀를 가는 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언제쯤 갈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시기를 몰랐다고 하였다.

육아의 경험이 없는 미혼교사들이 영아의 기저귀교체 시간을 숙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혼 초임교사들도 영아의 기저귀를 교체 시간을 숙지하기 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였다.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의 기저

귀를 만져 보거나 기저귀를 교체할 때 영아들의 소변 양을 체크해 보며 영아들의 기저귀 교체시기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선생님이 아이들이 갈아야 할 때쯤이 되면 기저귀가 말랑말랑 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부풀어 오르기 전에 갈아 줘야겠다고 생각 했는데 처음에는 시기를 잘 못 맞춰서 기저귀를 보니 아이들이 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일찍 갈아볼까? 하며 시간을 맞췄어요. 처음엔 점심 먹을 때 짬 같았는데 기저귀가 무거워서 시간을 당기고, 또 당기고 하며 시간을 맞췄어요. (2011. 8. 5. 박 교사 면담)

갈아줘야 할 시간은 알고 있었는데 학기 초에 너무 바쁘다 보니, 싸우는 아이들 중재하고, 떼쓰는 아이 달래고 하다가 시간을 놓쳐 늦게 갈아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다른 아이들을 잘 다뤘다면 지훈이 기저귀도 빨리 갈아주고 했더라면 더 빨리 대 소변을 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요. (2011. 8. 5. 이 교사 면담)

미혼인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아 주는 시기를 맞추기 위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들은 기저귀를 갈아 줄 시기가 지나면 기저귀가 무거워져 영아들의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당겨 가면서 시기를 맞춰갔다고 한다.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아 주기에 익숙해진 교사들은 영아들의 배변 교육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저귀를 하는 영아 수가 적고 혼자 반을 운영하다 보니 배변 교육을 해야 하는 영아의 욕구에 못 따라주는 경우가 있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영아들을 어린이집에 적응시키며 힘든 일 중 하나가 정해진 시간에 영아들 모두 낮잠을 재우는 것이다. 그 동안 엄마의 품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낮잠을 잤던 영아들이 장난감이 보이는 교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엄마 없이

혼자 잠이 들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영아들이 낮잠 적응을 위해 교사들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고 한다.

잠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명을 낮추고, 음악을 틀고, 자고 있는 영아가 깨지 않게 조용히 우는 영아를 달래고, 자기 싫어하는 영아를 위해 작은 소리로 동화책을 읽어 주며 영아들을 낮잠 시간에 적응 시켰다고 이들은 이야기하였다.

이불 깔아주면 자기 이불을 잘 찾아 가 눕더라고요. 그 후에 불 끄고 블라인드 내리고 음악 틀면 다시 일어나 놀아요. 몇몇은 자고 있으니 소리는 못 내고... 잠을 자지 않는 아이는 그림 그리고 조용히 놀아 줬더니 1주일간 한 숨도 안 잤어요.(중략) 1주 지난 후엔 재워야겠다 싶어서 시간을 좀 늘려 나갔어요. 재우려 노력하고 하다 보니 이젠 잘 자요. 아이들도 활동이나 하루 흐름에 익숙해져서 잠도 잘 자고 잘 놀아요. 이제야. 반년 걸렸어요.
(2011. 8. 5. 박 교사 면담)

전 처음에 눕혔더니 누워서 엄마, 할머니 찾으며 울더라고요. 처음에 신입 아이들은 다 울었어요. 한명 달래고 재울까 싶으면 옆에서 또 울고 그랬는데 점차 우는 시간이 줄어들더니 낮잠시간도 길어지고, 우는 아이가 있으면 옆에 가서 토닥여 달래주며 안정시켜 줬어요. 적응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2011. 8. 5. 이 교사 면담)

교사들은 놀고 싶어 하고, 엄마와 떨어져 우는 영아들을 달래가며 낮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그 과정이 반년이나 걸렸고, 우는 영아가 안정을 찾는 데는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또한 한 교실에서 잠이 든 영아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우는 영아를 달래고, 잠들게 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사들은 영아들의 기본 욕구를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며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을 도왔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러한 모든 활동이 처음이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영아교사로서 갖춰야 할 역할을 익혀가고 있었다.

4) 규칙, 허용 경계 짓기의 어려움

미혼 초임교사들은 아직 어린 영아들에게 규칙을 정해주고, 규칙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단체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허용 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이 적어도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에 맞게 생활하고, 친구들을 때리지 않고, 장난감을 뺏지 않는 등의 행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영아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는 영아, 교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말썽을 부리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어린 영아를 혼낼 수도 없고, 울고 떼를 쓰는 영아를 모른 척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친절하게 규칙을 알려 주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훈육이 적당하고, 어느 정도의 허용을 해 줘야 하는지, 또한 영아들에게 규칙을 정하고 어길 시 벌을 주어야 하는 건지, 어느 정도의 선이 적당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또한 영아들의 행동이 쉽게 바뀌지 않고, 교사를 따르지 않는 영아들을 보면 지금 자신이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영아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훈육하는 법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어린이집 현관에서부터 아이가 소리 지르며 우는 소리가 들린다. 만 2세 반 교실에 가보니 기현이가 울고 있다. 교사는 나에게 기현이를 부탁하고 다른 아이들과 체육실로 내려갔다. 별다른 이유 없이 체육실에 가지 않겠다는 기현이를 달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영아들을 체육 선생님께 인도 하고 교실로 올라온 교사는 기현이를 달래며 나에게 묻는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달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억지로 데려 갈 수 도 없고...’

(2011. 7. 20. 기린반 관찰)

교사는 하루일과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게 일과를 운영한다. 체육실로 가는 시간에 영아들을 인솔하여 체육실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기현이가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교사는 기현이를 달래다 보니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다.

교사는 다른 영아에게 까지도 불편을 주는 기현이를 훈육하여 체육실로 데려가고 싶지만 어린 영아에게 훈육을 해도 되는지 갈등이 된다고 하였다. 이 교사는 일과 운영과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의 문제행동을 할 때 달래야 하는지 훈육을 해야 하는지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다.

어떤 때는 이유 없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훈육을 해야 하는 건가? 내가 거의 다 알아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맨 날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아이의 발달 과정 중 하나니까 이해를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2011. 8. 16 이 교사 면담)

초임교사들은 담임으로써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한 결정이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뒤 따른다. 초임교사들은 영아가 고집을 부리고 친구들에게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 더 이상 허용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고 훈육을 해야겠다고 결정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 ‘모르고 한 일이면 어떻하지?’ ‘아직 어려서 그러는 건데...’와 같이 마음속의 고민이 일어난다고 했다. 초임교사들은 학기 초 대부분의 문제 상황에

서 훈육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등을 하다 결국에는 영아들에게 허용해 주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한 아이가 너무 심하게 떼를 쓰니까 내 방법이 뭐가 잘 못 된 건가에 대한 생각(너무 많은 허용)도 들고, 그렇다고 아직 아기 같은데 너무 많은 규칙을 적용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나아질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있었고... (2011. 7. 11. 이 교사 면담)

이 교사는 영아가 떼를 많이 쓰는 이유를 너무 허용적인 교사의 태도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아기 같은 영아에게 규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허용 할 수 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영아에게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제가 무조건 허용 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깐 이제 강하게 나가봐야겠다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어긋나는 것 같은 거예요. 기상 이는 계속 울고, 그 때 한참 안 좋았어요.

(2011. 7. 11. 이 교사 면담)

이 교사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영아들에게 강하게 훈육하는 방법을 택해봤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영아들이 더 나아질까 생각 했으나 오히려 영아들은 그런 교사의 모습에 울고, 어긋나는 태도를 보였고 교사도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문제 상황에서 훈육을 하는 법과, 허용하는 법을 모두 사용해 보았지만 어떤 방법이 맞는지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교실의 안정을 위해 무조건적인 허용보다는 규칙을 정하고 그를 어긴 영아에게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초임교사들은 방법적인 면에

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적응한 후 힘들었던 점은 떼쓰고 고집부리는 아이들, 아이들 때리거나 밀고 하는 행동들... 5월 말 경 이었는데 그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해결점을 찾으려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어요. 참고 자료를 보면 일괄된 규칙을 적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규칙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일관성 있는 규칙이고, 어디까지 허용을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은 연령 선생님 하시는 것 살짝살짝 보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허용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1. 8. 5. 이 교사 면담)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을 스스로 통제하여 즐겁게 영아반을 운영하고 싶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아들의 문제행동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해결점을 찾기 위해 인터넷과 참고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규칙의 선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었다. 자료에서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강조 하고 있었지만 실제에서는 매번 다른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상황을 선배교사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관찰하며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3. 미혼 초임교사가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보람

영아교사들은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을 만큼의 빠른 영아들의 성장을 느낀다고 하였다. 처음 만날 때 말을 못하던 영아가 말을 하게 되고, 스스로 배변 활동을 하게 되고, 자신의 물건을 정리 할 수 있게 된 영아들을 보면서 교사들은 스스로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격려와 함께 영아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람된 과정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교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였다.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의 성장 뿐 아니라 교사로서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람 감을 찾게 된다. 처음 경험하는 영아보육에서 확실한 모범 답안이 없어 스스로의 행동에 물음표를 그리고, 확신이 가지 않는 결정에 답답함을 느끼며 미숙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아들을 파악하고, 서로에게 적응해 나가면서 교사들을 따르는 영아들과 스스로 융통성 있게 영아반을 운영하는 자신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한 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교사들은 영아들을 통솔하는 자신이 교사답다 생각하며, 영아반 교사로서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1) 영아들의 성장과 변화

영아들의 성장은 눈에 띄게 빠른 변화가 온다. 초임교사들도 학기 초 언어도 미숙하고 배변활동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영아들이 몇 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기뻐했다. 또한 신발 정리, 혼자 식사하기,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됐다고, 영아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 주었던 교사들은 이러한 영아들의 변화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영아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함께했다는 뿌듯함과 영아들

의 성장을 도왔다는 보람을 느끼며 스스로가 교사로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영아들의 배변 훈련에 경험이 없던 교사들은 이 과정을 내가 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성공하며 영아반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영아교사들은 영아들의 성장과 변화를 배변, 식사시간, 사회성 발달 등에서 관찰되었다고 말한다.

박 교사는 처음 만날 때 기저귀를 하고 오던 영아들이 배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희연이 기저귀 땄 때 너무 기뻐어요. 희연이를 보면 다른 것들을 다 잘 하고 빨라서 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팬티 입는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 번기에 앉혀 봤는데 바로 하더라고요.(중략) '너무 예뻐, 잘 했어.. 쉬 소리 들었니?'라고 하면서 격려 많이 해 줬어요.

(2011. 7. 11. 박 교사 면담)

처음 영아반이 되었을 때는 기저귀 가는 법에 대해 고민했던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의 배변 훈련을 돕기 위해 동영상과, 참고 자료를 보며 준비했다고 한다. 우선 개월 수와 영아들 중 배변 훈련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 영아를 선정하여 훈련을 해 보았다. 박 교사는 첫 시도라 두려움이 있었지만 희연이가 생각 보다 쉽게 따라와 주어 기쁨을 느꼈다고 한다. 박 교사는 배변 훈련에 성공한 희연이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하였고 그 과정을 성공한 자신에게도 큰 보람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배변 뿐 아니라 한학기가 지나가며 영아들의 식습관 또한 바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 학기 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영아들의 식습관이 긴 시간이 지나서야 정착된 영아들의 식습관을 보며 교사들은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스스로를 격려 하였다고도 하였다.

점심시간이나 간식 시간 때 이제는 이탈 안하고 앉아서 잘 먹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해요. 이제 애들이 좀 잡히는 구나..
(2011. 8. 16. 박 교사 면담)

점심시간이 되자 영아들은 식판이 준비된 자리에 앉는다. 교사는 배식이 끝나자 수저통을 주며 숟가락과 포크를 집어 보도록 말하였고, 영아들은 순서를 기다려 자신의 숟가락과 포크를 잡는다. 5월에 관찰됐던 것과 다르게 영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스스로 식사를 하고 있었고, 교사는 스스로 잘 먹는 영아들에게 격려하는 상호작용을 해주고 있다.

(2011. 8. 22. 토끼반 관찰)

학기 초 적응과정에서 초임교사들은 한 자리에 앉아 식사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놀이하려는 영아들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8월에 관찰된 만 1세반의 점심시간은 안정된 모습이었다. 식사 전 스스로 수저와 포크를 챙길 수 있게 되었고, 이탈하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교사는 식사시간이 이렇게 변화되기 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였고, 이렇게 변화되기 까지 기다리고, 도움을 줬던 자신에게 스스로 수고했다는 격려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변과 식사 등의 기본 욕구와 관련된 것 뿐 아니라 교사들은 영아들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교사들은 친구를 때리고, 물건을 뺏는 등의 문제를 보이던 영아가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영아들도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며 문제행동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 변화의 이유를 이 교사는 신입영아가 온 것이라고 말하였다.

민성(신입영아)이가 오고 나서 우리 반에서 제일 말썽이 많던 기현이가 변했어요. 민성이가 처음 왔는데 너무 잘해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걸 기현이가 봤고, 제가 기현이에게는 ‘기현이가 먼저 어린이집에 다

너 잘 아니깐 민성이를 도와 줘야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민성이가 잘 할 때 칭찬 해 주니 기현이도 칭찬 받으려고 같이 잘 하려고 하더라고요.

(2011. 7. 4. 이 교사 면담)

6월 말 만 2세반에 새로 온 신입영아는 처음 갖지 않게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하였다고 한다. 이 교사는 이런 민성이에게 많은 격려를 하게 되었는데 칭찬을 받는 민성이의 모습을 기현이가 관찰하고 있었다. 교사는 이 기회를 통해 기현이에게 민성이를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해보도록 권유하였고, 기현이는 어린이집 생활이 처음인 민성이를 도우며 기쁨을 느꼈다고 한다. 이 교사는 친구를 돕는 기현이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하였고 그러다 보니 기현이의 문제행동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기현이는 교사에게 인정받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이 교사 또한 기현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반 분위기도 변화가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기현이를 많이 칭찬해 주게 되고, 그러니깐 기현이도 더 잘 하려고 해요. 예전엔 기현이의 문제점만 보였는데 지금은 좋은 점도 보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도 변화가 된 걸 느껴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현이가 오전에 많이 울고 등원해서 어머니가 걱정 되서 잘 놀고 있는지 전화오고 했는데 요즘엔 전화도 안하시고, 기현이가 어린이집 가고 싶어 한다고, 선생님이 좋다는 메모도 적어주세요. 그럼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기현이를 더 예뻐하게 되요.

(2011. 7. 4. 이 교사 면담)

예전과 달리 기현이의 변화를 통해 교사는 기현이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고 칭찬해 주게 되었다. 그를 통해 기현이도 어린이집 생활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한 변화들이 다른 영아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즐겁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변화된 것이다. 예전과 달리 기현이의 변화를 부모님도 느끼신다는 반응에 이 교사는 더욱 더 기쁨을 느끼고 영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영아의 부정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 된 후 영아도 교사도 어린이집의 생활이 즐거워진다고 말하였다. 교사는 영아들의 신체적 성장 뿐 아니라 사회성 성장에서도 영아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영아반인 만큼 교사들은 영아에 맞는 기본생활 습관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연 구 : 영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교사 : 지금은 아이들이 개인 물건 제 자리에 정리하는 것, 손 씻을 때 비누 한번 짜는 것, 점심시간에 앉아서 먹고, 먹은 후 식판 정리, 스스로 양치(마무리는 교사), 집에 갈 때 개인 물건 정리 등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박 교사 : 저희도 손 씻는 방법, 화장실에서 혼자 바지 내리고 쉬하기, 밥 먹을 때 수저 포크 가져 오기, 바깥 놀이 갈 때 자신의 신발장에서 신발 꺼내고 스스로 신어보기, 자신의 신발장에 정리하기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2011. 8. 12. 공동 면담)

무엇이든 모든 일에 도움이 필요했던 연락했던 영아들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 교사들은 그 과정을 잘 따라 준 영아들을 대견하게 생각하였고 이를 이끈 자신에게도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한 학기가 지나며 어린이집에 적응한 영아들을 보며 교사들은 처음 영아반을 맞아 두려워하던 것과는 달리 영아반을 맞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영아들의 성장을 도왔다는 뿌듯함과 영아들과 맺게 된 애착 관계를 통해 영아반 교사로서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2) 노하우의 축적

처음 해보는 일에 익숙하고 노련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과 환경에 적응하고, 어려움을 겪은 후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내 일에 익숙해지고, 이러한 시간을 반복 하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미혼 초임교사들도 양육의 경험도 가르치는 일도 모두 처음이었고, 그들이 내린 결단과 행동에 누군가가 일일이 설명해 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보육에 대해 잘 모르고 힘들지만 스스로 경험하고, 시도하면서 영아들을 알아가고 영아교사라는 직업에, 교사라는 호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적응해 가고 있었다. 이들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4~5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영아교사들은 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영아들 사이의 문제 상황 해결하기와 영아들을 통솔하기,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교사들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고민은 하겠지만 문제를 덮고 그냥 넘어 가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영아들이 울고 떼를 쓴다고 이를 받아 주는 법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아가게 되었다. 교사들은 그들이 그토록 궁금해 하던 일관성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그들이 쌓은 노하우를 영아반 운영에 적용하면서 긍정적 변화를 느끼게 되었고 이를 통해 스스로가 교사다워 졌음을 느낀다는 보람된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처음에는 무조건 허용적 이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만만하게 보고 말을 안 들어 강하게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어긋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강하게 하려니깐 나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알게 된 것이 단

호함은 지키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2011. 7. 11. 이 교사 면담)

영아들을 통솔하기 위해 교사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잘 따르지 않게 되자 강한태도로 대하자 어긋나는 영아들을 경험하였다. 이 교사 뿐 아니라 박 교사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 단호함을 지키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초임교사들의 변화된 태도는 연구자의 관찰에서도 볼 수 있었다.

(놀이터에서 희연이가 어린이집 밖으로 연결된 울타리에 올라간다.)

박 교사 : 위험해.. 내려와~

(잠시 후 희연이가 소꿉놀이 장난감을 울타리 밖으로 버렸다.)

박 교사 : 희연아~ 선생님 밖에 나갈 수 없어... 어떻게? 어린이집 물건인데.. 문 잠겨서 나갈 수 없어.. 함부로 던지는 것 아니에요..

(약 1분 후 희연이가 또 장난감을 밖으로 던졌다.)

박 교사 : (조금 큰 소리로) 이희연! 나갈수 없어요. 어떻게? 또 던질거야?

(희연이는 계속 교사를 피하고 도망가려고만 한다.)

박 교사 : 선생님 봐.. 던지는거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희연이는 교사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소리 지르며 저항한다.)

박 교사 : 선생님 봐봐.. 이야기하고 있어. 들어줘.. 혼내는 거 아니야..

선생님 얘기 들어줘.. 들을 준비 됐어?

(희연이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교사 이야기를 들어주자 침착하게 설명해 준다.)

박 교사 :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밖으로 던지는 거 아니야. 친구들도 못나가.

(교사의 말을 듣고 희연이가 수긍하였고 교사는 희연이와 약속을 하고 마무리한다.)
(2011. 8. 18. 토끼반 관찰)

희연이 같은 경우는 혼내면 일단 울고 봐요. 예전엔 울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놔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딱 잡고 그치고 얘기하자고 해요.. 그러면 말을 잘 알아들어서 딱 그쳐요. 그리고 선생님 말 들을 준비 됐냐고 하면 끄덕여요. 처음엔 어떻게 할이지 몰라 그냥 뒀는데 요즘은 소리 질러도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2011. 8. 22. 박 교사 면담)

4~5월 달에 희연은 문제가 생길시 울고, 소리 지르며 저항을 해서 교사가 당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박 교사는 온몸으로 거부하는 영아를 잡고 훈육하기가 어렵다는 호소를 하였고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우는 영아에게 단호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8월에 관찰된 박 교사는 문제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피하려고 우는 영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이 교사는 희연이가 장난감을 문 밖으로 던지지 말라고 말로 이야기 하였고 그 말을 듣지 않는 희연이와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 상황을 거부하는 희연이에게 이 교사는 ‘혼내는거 아니야, 선생님 얘기 들어줘.’라고 말하며 안정을 시킨 후 약속을 하고 마무리하였다. 이 교사는 영아를 훈육하는 법 말고도 영아를 안정시키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법을 알아가고 있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실은 점점 안정되게 되었다.

이렇게 영아들의 감정을 읽고 통솔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적응 일지를 작성하며 영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특성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영아들을 보낸 후 하루 일과를 작성 하다 보면 그 아이의 하루를 다시 한 번 회상해 볼 수 있고, 어떻게 해 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리 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울음을 그치게 했던 행동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날 적용하면 금방 울음을 그치기도 하고... (2011. 8. 5. 박 교사 면담)

영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적응 일지를 작성하며 교사들은 영아들을 파악하게 되고 파악한 내용을 적용하며 영아들의 적응을 돕고 있었다. 영아들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교사들도 영아반 교사로서 적응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영아들을 본 후 그동안 영아들을 통솔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시도해보고 성공감을 맛보았다는 이야기한다.

저는 저의 반 아이들이 줄서기가 정말 안됐었어요. 그런데 같은 연령의 옆 반 친구들이 너무 잘하니깐 우리 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이들 줄을 세우고 계속 이야기 해주기도 하고(이탈하면 안 된다, 난간 잡고 내려 가야한다) 내려갔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깐 성공하게 되고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인솔하게 됐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데...나를 잘 따르는구나, 이제 교사답다고 느껴요. (2011. 8. 16 이 교사 면담)

이 교사는 줄서기를 성공하는데 까지 2달이 걸렸다고 했다. 선배교사들에게 쉬워 보이는 사소한 일들을 초임교사들은 오랜 시간과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완성된 것이었다. 어린 영아들이기 때문에 줄을 세우고 그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사소하고 쉬워 보이는 줄서기지만 이 교사에게는 시행착오가 필요했고 그래서인지 성공하게 된 후 작은 일이지만 큰 보람을 느끼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초임교사들은 작은 일들도 스스로 경험하고 시도해보며 교사로서 영아들을 통솔하는 기쁨을 느끼며 스스로 이제 교사다워 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초임교사들은 대집단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자신에게서도 교사다움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수업할 때 대집단 그렇죠. 아이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답 해주고.. 아이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아.. 내가 이전 이렇게 아이들을 집중 시킬 수 있구나..’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전 조금씩 아이들이 저에게 집중할 때 이제 좀 되는 것 같다. 교사다워졌다고 느껴요. (2011. 8. 16. 박 교사 면담)

학기 초 교사들은 대 집단 활동 시 영아들을 자리에 앉히고 집중시키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그러나 지금은 영아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함께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쌓게 된 것이다. 또한 교사가 준비한 놀이를 영아들과 즐겁게 활동하고, 부모님 앞에서도 영아교사로서의 당당함을 보이는 세련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려움을 경험하며 노하우를 쌓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 미혼 초임교사들은 스스로가 교사다워졌음에 보람을 느끼고, 영아들과 보낼 하루가 기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좀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나아져서 ‘이제 나도 아이들을 통솔할 수 있구나’ 해요. 그 전엔 내가 통제를 못하니까 ‘난 뭔가? 내가 교사 맞나?’하는 생각에 힘들었는데 이제 제 말을 잘 듣고 따르니까 아이들도 예뻐졌어요. 예전에는 애들이 말을 안 들을 거라 생각 때문에 출근 할 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너무 괜찮으니까 출근 할 때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거란 기대를 하게 되요. (2011. 7. 11. 이 교사 면담)

3) 융통성 있는 일과 운영

미혼 초임교사들은 실제로 영아반을 운영하다 보니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영아가 거부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놀이가 전개되기

도 하고, 영아들의 놀이를 주도하여 이끄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보육계획안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지만 교사의 생각대로 영아들이 따라 주지 않아 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영아들을 이끌어야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미혼 초임교사가 융통성 있게 일과를 조정하고, 영아들을 이끄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교사의 계획대로 잘 따르지 않고, 영아들의 놀이를 확장해 주는 등 교사의 융통성을 필요로 하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함을 느꼈던 교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며 영아들을 통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저번 주부터 애들이 스스로 블록을 쌓아 놓고 마트 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만들기 활동을 확장해 주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팔아보고 얼마인지 물어보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계산하고,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정도로 계획하고 놀이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2011. 7. 4. 이 교사 면담)

교사는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계획하였다. 그런데 영아들이 마트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로 확장 시켜 주었다고 한다. 영아들의 놀이를 확장시켜주는 교사는 학기 초 영아들에게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거나, 영아들의 놀이를 그냥 지나치는 모습이 아닌 영아들의 놀이와 교사의 계획을 통합하여 놀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사 또한 이런 스스로가 교사로서의 많은 성장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놀이를 확장 시키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장난감을 영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도 미혼 초임교사는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교실에 뽀로로 키보드가 들어왔다. 영아들이 키보드에 달라 들었다. 서로 하겠다고 밀고, 때려서 우는 아이, 끝까지 키보드에 몸을 들이 미는 아이들 때문에 교실은 정신이 없어졌다. 교사는 영아들을 말려 보지만 영아들은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분쟁 중이다. 영아들을 통제 할 수 없는 교사는 키보드를 들어 영아들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으로 옮겨 놓았다.

(2011. 5. 4. 기린반 관찰)

관찰과 같이 교사는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와도 서로 하겠다는 영아들을 통제하지 못 해서 장난감을 모두 다 사용하지 못하는 곳으로 옮긴 후에야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8월의 관찰에서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는 오전 인사 시간에 새로운 교구를 소개하였다. ○△□ 도형을 같은 모양의 구멍에 집어넣는 조작 놀이 교구 였다. 영아들은 새 교구에 흥미를 보였고 인사 시간이 끝나자 새로운 교구로 영아들이 몰렸다. 교사는 ‘우리 다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 한 후 ‘놀이하고 싶은 친구는 여기 앉아 보세요.’하고 아이들을 앉힌다. 서로 하려고 하는 영아에게 순서를 정해 준 후 ‘잘 기다리는 친구가 다음에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 해 준다. 영아들은 자신의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며 친구가 놀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2011. 8. 30. 기린반 관찰)

영아들은 좋아하는 새 장난감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보다 혼자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러다보니 교실 안에 새로 들어오는 장난감이 있으면 영아들의 다툼이 일어났다. 학기 초 초임교사는 새로운 장난감을 제시하기를 두려워 하였다. 그 것이 오히려 분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사는 새로운 장난감을 교사가 주도하여 제시하였고, 순서를 정해 모두가 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었다. 물론 친구들이 놀이 할 때 기다리는 영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교사는 참고 기다리는 영아에게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질서를 잡아가게 됐다고 하였다. 교사는 이렇게 스스로가 영아들을 통솔하고 일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된 데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다

. 놀이에서 뿐 아니라 교사는 다음 활동으로 전이 하기 위해 자유놀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리를 안 하는 영아들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다 보면 교사가 정리를 다 하게 될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교사는 정리 시점을 파악하여 정리 시간을 운영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아이들이 정리할 시점인 것 같다는 게 보이고 그 때 정리하자고 하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전엔 그런 걸 몰라 무조건 하라고 하니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파악하면서 해야겠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왜 애들이 내 말 안 들을까? 이러기만 했는데 지금은 할 때를 조금 기다려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도 기분 좋고...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2011. 7. 11. 이 교사 면담)

교사가 모두 제자리라고 이야기한다. 현재는 놀이하던 블록을 우르르 무너뜨린다. 영아들은 정리를 하지 않고 다른 놀이로 옮겨가 놀이를 한다. 교사는 정리를 안 하는 영아들에게 ‘코끼리가 되어 정리 해 볼까? 코끼리 코로 정리하기~’라고 말한다. 영아들은 신이 나서 코끼리 코를 하고 정리를 한 후 교사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로 가 손을 씻고 점심 준비를 하였다. (2011. 7. 4 기린반 관찰)

교사는 정리 시간에 더 놀이 하고 싶어 하는 영아들을 정리에 참여 시키려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교사는 영아들이 함께 정리에 참여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기도 하며 놀이를 즐겁게 마무리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예전에는 놀이에서 다음 활동으로 전이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영아들을 잘 통솔하여 일과를 잘 운영하게 되었다.

풀리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교사는 더 많은 일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예전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영아를 잡고 있다 보면 소외가 되는 영아도 있었지만 지금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유놀이 시간에 중재할 때 여기 중재하면 저기서 싸우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야기해도 다른 아이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울 것 같다 하면 가서 떼어 놓고 해요. 처음엔 끝까지 얘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요령껏 해요. (2011. 7. 11. 이 교사 면담)

영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다 보니 유아, 교사 모두가 안정 되면서 교실에 평화가 찾아 왔다. 그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영아들은 즐겁게 놀이하고 교사는 그런 영아들을 통솔하면서 교사로서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5월에 만난 교사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토로 하였지만 지금의 교사는 영아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며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고 스스로 영아교사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영아반을 교사로서의 만족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처음에 영아반을 맞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야 뿌듯하고, 나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구나... 영아들이 어리다 보니 하루하루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하루하루가 뿌듯해요. 기저귀도 떼고, 말 못하던 아이가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지 영아반 하길 잘한 것 같아요. (2011. 8. 6. 박 교사 면담)

박 교사는 지난 어려웠던 시간을 통해 영아들의 변화와 성장을 보며 결실과 뿌듯함을 맛보고 있었다. 또한 박 교사는 처음 유아반을 희망 했던 것과 달리 영아반을 맞길 잘 했다는 생각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초임 교사들은 영아반 생활에 적응하며 영아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며 영아들과의 즐거운 일과를 보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혼인 초임교사가 영아반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통해 그들이 교사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해 미혼 초임교사들이 영아반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사전 준비와 교육의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아반 운영이 처음인 미혼인 초임교사 2명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들이 작성한 일일보육 계획안과 일과평가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분석과 해석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초임교사들은 자신의 반을 처음 맡게 될 때 영아교사로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미혼 초임교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무한한 애정으로 영아들을 사랑할 것이라는 다짐과, 영아들은 교사인 나의 의견에 순응하고 나의 편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다. 이를 통해 내 반과 내 아이들이 생긴다는 설렘과 기대로 영아교사로서의 반 운영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에게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태도와 언제나 영아들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아반을 운영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미혼 초임교사들은 이러한 방법만으로 영아들을 다루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가 영아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영아와 영아반을 운영하며 느끼는 신체·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교사들은 교직 전의 다짐과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영아들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 다시 영아들에게 무한애정을 주어야겠다는 마음으

로 바뀌었고, 이들은 이러한 감정을 반복하는 순환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이 자신의 편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영아들은 교사를 순순히 따르지 않았으며 순응보다는 불 순응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다. 영아들이 순응 또는 불 순응하는 행동에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며, 교사의 가르침에 따르는 행동에는 복종이 아닌 영아의 자율적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김지현, 2006). 그러나 미혼 초임교사들은 이러한 영아들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자신의 기대와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는 미혼 초임교사들이 교직에 입문하기 전 이론이나 이미지로만 파악했던 영아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초임교사들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실습과 관찰을 통하여 영아반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며 영아들이 가진 특성은 어떠한지를 사전에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혼 초임교사들은 어린이집에 임용된 후 자신이 자발적으로 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영아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그러한 기대감과 책임감으로 첫 수업을 준비하였으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영아들의 태도와 교사 자신의 긴장감으로 인해 기대만큼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없었다. 이때서야 교사들은 자신의 기대와 현실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 초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운주 외(1998)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은 교사로서 교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술과 직전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학습한 이상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당혹감을 느끼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의 무력감을 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도 미혼 초임교사들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미혼 초임교사들은 의욕과 기대감으로 교직에 입문하여 기대와 다른 현실

에서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동시에 이들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영아들의 발달을 돕는 교사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교직 초기의 경험은 교사 발달의 전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시기이며(박동준, 1992), 교직 초기의 초임교사들이 어떻게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적응해 가는가 하는 것은 전문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완희, 박찬옥, 2005). 그러므로 교직 초기의 교사들이 자신의 기대와 다른 교직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배교사와 운영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영아에 대한 환상적 이미지와 이론적 지식만 갖고 교직에 입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직 전 교육에서 영아반의 현실과 영아들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경험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교직 전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문 후 개별 멘토링으로 이어져 초임교사가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면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영아교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반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영아의 실질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영아의 기본적 욕구 지원의 어려움과 규칙과 허용 경계 짓기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초임교사들은 교직 전 교육에서 영아의 발달을 이론서를 통해 이해하였으나 실제 영아들의 발달 상태는 이론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영아들의 발달은 개개인에 따라 특성과 차이가 있기에, 초임교사들은 이러한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교사 양성과정의 교사교육이 지극히 이론 중심이며, 이 과정에서 배운 이론은 실천을 위한 이론이 아닌, 지식을 위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미혼 초임교사들이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이완희, 2004)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괴리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론서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현장 관찰과 영아들의 개인 발달을 관찰하여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사전에 경험 할 수 있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은 어린 영아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자신과 영아들 사이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는 영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며 영아들이 왜 우는지, 왜 싸우는지 등의 이유를 몰라 상황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의 배변활동, 식사, 잠자기 등의 기본적인 욕구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기 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는 교사들이 양육의 경험이 없는 미혼이라는 것과, 보살핌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보여 진다.

미혼 초임교사들의 보살핌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영아를 보육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으며, 별다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다는 인식 때문에 보살핌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발달시켜야 한다(황경애, 김현주, 2005). 이처럼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아 보살핌에 대한 전문성은 반드시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교직 입문과 동시에 경력교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영아교사의 특성(박은혜, 2009)을 볼 때 영아 보살핌에 대한 교육은 교직 직전 기관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예비 영아교사들에게 영아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살필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육아의 경험이 없는 미혼교사들에게는 기저귀 갈기, 배변교육 등을 사전 실습·교육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칙과 허용의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미혼 초임교사들은 학기 초 영아들의 행동에 대해 무조건 허용적 이었으나 교실의 질서가 잡히지

않자 규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허용과 규칙에 관련하여 김지현(2006)은 영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허용적인 교사의 태도가 필요하지만 다수의 영아들을 안전하게 보살피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엄한 교사의 태도도 필요하며, 영아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처럼 연구 참여자들도 교실의 안정을 위해서는 허용적인 것과 엄격한 것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를 적용하는 것에서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졌다.

미혼 초임교사들은 허용과 규칙에 대해 선배교사의 조언을 받고 이를 적용하면서 교실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으나 이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혼 초임교사들이 영아반 운영에서의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함께 극복을 위해서는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공감해주는 선배교사의 멘토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영아교사의 전문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서는 멘토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 이영미(2006)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론을 보아 미혼 초임교사들의 어려움은 지금의 교직 전 교육이 영아교사로서 영아반을 운영하는데 부족함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직 전 교육 기관인 유아교육과 및 아동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유치원 교사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어 영아교사로서 필요한 교과과정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박유미, 2008), 또한 유아중심의 교육과정과 이론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다. 때문에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영아반 운영에 있어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다(조혜진, 2007).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처럼 연구 참여자들도 ‘보살핌’ 보다는 ‘가르침’이 중심이 된 교육을 받았기에, ‘보살핌’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를 양성하는 직전교육기관에서는 영아반 실습과 보육과정을 좀 더 강화하여 보살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영아교사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반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영아반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아들의 성장과 변화, 자신만의 노하우 축적과 이를 통해 융통성 있는 일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교사로서 성장한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미혼 초임교사들은 신체, 언어, 정서,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영아들의 모습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영아발달에 영향을 준 스스로에게 보람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어린이집에 적응하여 원만한 생활을 하는 영아들에게 애착을 느끼고, 이러한 애착관계를 통해 영아교사만이 갖는 보람됨을 경험하였다. 양지영(2007)의 미혼 초임교사에 대한 연구를 보면 영아와 교사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교사역할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직업적 정체성을 찾아가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처럼 연구 참여자들도 영아와의 애착을 통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들과의 애착뿐 아니라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영아반 운영에 적용함으로써 예전보다 융통성 있는 일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초임교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일반적 원리와 이론을 영아반 교실 상황에 맞게 적용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접점을 찾으며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조혜진(2007)의 연구와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혼 초임교사들은 교직에 입문한 후 자신이 생각한 영아교사로서의 이상과 다른 실제에서 혼돈과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이 경험한 어려움을 반복하고, 수정하며 영아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미혼 초임교사의 영아반 적응과정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초임교사들은 영아의 발달과 욕구, 의사, 기질 등 영아반 운영에 필요한 영아의 특성을 이론으로 습득한 후 교직에 입문하였다. 이 후 초임교사들은 교직 적응과정에서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초임교사들은 영아반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는 영아교사들이 교직 전 교육에서 유아와 이론 위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비 영아교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고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영아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직 전 교육기관에서 더욱 더 실용적인 영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영아들의 기관경험 연령이 점점 더 하향화됨을 감안하여 유아교사 양성 뿐 아니라 전문적인 영아교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 기관에서는 미혼 초임교사가 전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영아반 운영 경험이 있는 선배교사와의 멘토링을 장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기술적인 교수 방법 뿐 아니라 미혼 초임교사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함께 지원해 주어 영아교사가 안정된 정서로 영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승미와 김순환(2010)은 선배교사, 기관장의 정서적 지지는 영아반뿐 아니라 보육 기관 전체의 교육이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서적 지지는 보육 기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으로, 초임교사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해준다면 안정되고 효율적인 영아반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상이 (2002). 교사발달 측면에서 본 유치원 초임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곽승주 (2003).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2세 영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경숙 (2002). 어린이집 영아들의 갈등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 이희경 (2000). 유아교사의 역할 Q - set 개발 연구. 중앙유아교육학회. 4(1) 27-54
- 김언아, 김희진, 홍희란 (2006).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김정환 (2004). 장학론. 서울: 학지사.
- 김지수 (2008). 만1세 영아의 보육시설 초기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 (2010).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6). 어린이집에서 영아보육이 지니는 의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수래 (2011).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요인. 안양 대학교 경영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준 (1992).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의 초기 교직 사회화. 충북대 교육개발논총, 13.
- 박유미 (2008). 영아기 발달특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식과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 배소연, 이정옥 외 (2002). 유아 교사교육의 최근 연구 동향.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박은혜 (2009). 유아 교사론. 서울: 창지사
- 박혜훈 (2009). 예비유아교사의 영아교사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성희 (2003). 영아보육의 운영 실태와 발전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은주, 서소용, 조부경 (2005). 유아교사의 발달을 돕는 장학. 서울: 양서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세 보육프로그램. 서울: KICCE 육아개발센터.
- 보건복지가족부 (2008). 1세 보육프로그램. 서울: KICCE 육아개발센터.
- 보건복지부 (2009).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재. 서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영숙, 김경혜 (2006). 보육학 개론. 파주: 양서원.
- 성은숙 (2008). 영아교사의 역할에 관한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연구.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은수, 권미경 (2004). 유치원 초임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인식과 역할수행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타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0.
- 신희이 (2011). 영아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심성경, 백영애, 이희자, 이영희, 변길희, 김은아, 박유미, 박주희, 최대훈, 박경신 (2009). 보육학 개론. 고양: 공동체
- 오현미 (2009). 초임 보육교사 지원에 대한 인식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지영 (2007). 영아반 미혼 초임교사의 역할과 갈등.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양옥승 외 (1999). 영유아 보육개론. 서울: 학지사.
- 염지숙 (2005). 유아교육현장에서 돌봄의 실천과 한계. 유아교육연구, 25(5),

147-262.

- 윤애희, 이경희, 임은숙, 임채식, 정정옥, 주영은 (2003). 보육에 대한 이해와 실습. 서울: 교육아카데미.
- 윤장숙 (2010). 미혼 양육모의 영아 양육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경돈 (2010). 영아보육교사의 영아발달지식과 보육효능감이 전문성 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하, 임영심 (2006). 18~22개월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영아 교사의 역할.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2). 유아교육개론. 서울: 양서원
- 이남주, 김소양, 이재삼, 장현주 (2011). 보육학개론. 파주: 공동체
- 이명순 (2000). 유치원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순영 (2009).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1), 301-317
- 이승미, 김순환 (2010). 교사들이 인식한 일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내러티브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1, 175-196
- 이영미 (2006). 멘토링을 통한 2세 영아교사의 보육프로그램 수해과정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완희 (2004). 영아반 초임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완희, 박찬옥 (2005). 2세 영아반 초임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 유아교육학 논집, 9(3), 5-30.
- 이지현 (2002).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적응과 지원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화 (2007).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개인 및 기관의 정서변인, 직무만족

- 도, 소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향 (1996).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전문성인식과 영아반 프로그램 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 (2002). 유치원 초임교사가 교직 수행 시 어려움에 직면하는 어려움에 관한연구. 열린 유아교육 연구, 5(2) 185-204.
- 임미혜, 이혜원, 황윤세 (2007).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보육과정. 파주:학현사.
- 장영희 (2000). 영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 장원동, 홍인혜 (2009). 유아교사론. 서울: 청목 출판사.
- 정옥분 (2007).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 조복희, 공인숙, 권희경, 김혜선, 박은미, 서소정, 오연주, 정정희, 한세영 (2007). 보육과정. 파주: 교육과학사.
- 조부경 (1994). 유치원교사의 교직전문성 인식과 관심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교수논총, 10(2), 131-159.
- 조운주 (1998). 초임교사의 교직 입문을 지원하는 장학요인의 역할과 자질. 한국교사교육, 15(2), 150-167.
- 조혜진 (2007). 영아반 초임교사들의 어려움과 적응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 연구, 27(3), 315-335
- 탁정아 (2011). 영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유아교육학회 (1997). 유아교육사전 용어 편. 한국사전연구소.
- 황경애, 김현주 (2005).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 논문집, 44, 109-128.
- Colton, A. B. & Sparks-Lamger., G. M. (1993). A conceptual framework to guide the development of teacher reflection and decision making.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4(10), 45-54.

Honing, A. S. (1995). 김남성 역. 아기는 이런 것을 원해요. 서울: 교육과학사.

Seidman, I. (2009). 박혜준, 이승연 역. 질적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서울: 학지사.

Veenman, S. (1984). Perceived problems of beginning teacher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4, 143-178.

ABSTRACT

A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Unmarried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Choi, Ji-hyun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process to be a teacher through the experiences in the adaptation process of unmarried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and to clarify preparation factors for toddler teachers and the meaning of education.

According to this purpose of study,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1. What kind of expectations do unmarried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get when they first take care of their homeroom classes?
2. What kind of difficulties do unmarried beginning teachers find in adapting to their toddler classes?
3. What kind of satisfactions and rewards do unmarried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get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To explore these study tasks, 24 weeks participant observations, 6 times individual(separate) meetings, and 1 joint interview are conducted in the toddler class from May 9th to August 19th in 2011.

The data was analysed by collecting participant observation diaries, interviews, daily lesson plans, daily evaluations and classified by subje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nmarried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felt a sense of expectation when they first took care of their homeroom classes. They had some expectation that they would show endless affections to their toddlers in any circumstances and their toddlers would always obey their teachers as well. So they started to manage their classes with excitement and expectation because of the fact that they can get their own classes and toddlers.

Second, unmarried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had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their classes. They ha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bout toddlers' practical development, communicating with toddlers, supporting toddlers' basic needs and making the definite boundary between rules and permission. The teachers understood toddlers' development by studying theories before they taught toddlers but they realized that there was the differe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of toddlers' development. There are individual'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the toddlers' development so teachers had a hard time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m and overcoming their difficulties.

Third, unmarried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felt rewarded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classes. They felt their own growths as teachers by managing flexible daily schedules through toddlers' growths and changes, accumulated teachers' knowhow. The teachers were pleased with the toddlers' physical, linguistic,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ey felt rewarded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y played a indispensable role in developing their toddlers. The teachers also felt more affection to the toddlers who adjusted to the child-care center well and they felt rewarded through their affection.

As the results, the suggestions on the process of adaptation for unmarried beginning teachers as follows.

First, education institution should develop toddler education programs which unmarried beginning teachers can use in the field of education right after employing to manage and adapt to their toddler classes effectively. Also it should try to train professional teachers.

Second, education institution should set up the mentoring programs for unmarried beginning teachers by experienced teachers. Mentoring programs can help beginning teachers to have some expertise in many ways and the teachers can take care of their classes with psychological stability using them as well.